

# 1880년대 『漢城旬報』의 중국 인식

장 보 운 \*

- 
- |                     |                  |
|---------------------|------------------|
| 1. 서론               | 3. 『漢城旬報』의 중국 인식 |
| 2. 『漢城旬報』의 중국 관련 기사 | 4. 요약 및 결론       |
- 

**초록:** 본 연구는 『한성순보』의 중국 관련 기사 구성, 중국에 대한 인식 및 보도 논조를 중심으로 『한성순보』에 나타난 중국 인식을 고찰하였다.

『한성순보』는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중국 위상 변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음을 보여 준다. 이러한 관심은 중국 관련 기사, 특히 청불전쟁 보도 자료가 압도적인 비중을 차지했음을 통해 알 수 있다. 또한 본 연구는 『한성순보』에서 중국에 대한 친화적인 태도가 드러남을 보여준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잘 나타난다.

첫째, 『한성순보』는 중국을 비록 서양 열강에 비해 낙후되어 있지만 전망이 밝은 대국으로 묘사하고 있다. 『한성순보』는 동아시아 문명에 대해서는 긍정적인 시각으로 바라보았지만, 반면에 서양 문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정하고 지지하는 입장이 아니었다.

둘째, 『한성순보』는 중국인을 비록 지금은 고난에 허덕이지만 언젠가는 충분히 부활할 수 있는 지혜롭고 미래가 밝은 집단으로 묘사했다. 또한 중국 국내 및 조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 관리들과 병사들에 대해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셋째, 『한성순보』는 그 당시 중국과 대치 상황에 있었던 프랑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취하였다. 즉, 프랑스를 중국과 달리 '자기의 힘을 믿고 약한 자를 능욕(恃強凌弱)'하는 소인배로 표현하며 강렬한 아시아 유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한성순보 사건”을 통해 보면 중국에 대한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러한 부정적인 태도는 일시적인 현상에 불과했다.

**핵심어 :** 한성순보, 중국인식, 조선, 청불전쟁, 한성순보 사건

---

\*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객원연구원, 중국 魯東대학교 조교수 및 중국 북경대학교 연구보조원 겸임.

## 1. 서론

본 연구는 『한성순보』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인식을 살펴보는 데 목적이 있다. 『한성순보』는 1883년 10월 31일(음력 1883년 10월 1일)<sup>1)</sup> 창간되어 1884년 12월 4일 갑신정변으로 발행이 중단된 한국 최초의 근대 신문이다.<sup>2)</sup> 제41호까지 발행되었을 것이라고 추측되나, 현재 전해지는 것은 창간호부터 제36호(1884.10.9)까지이다.<sup>3)</sup>

그 동안 『한성순보』에 대해 적지 않은 연구들이 이루어졌다.<sup>4)</sup> 그 중 『한성순보』의 중국에 대한 보도태도에 대해서는 학계에서 상반된 의견을 갖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한성순보』가 일본에 대해서는 선망의 대상으로 긍정적인 뉴스를 게재하고, 중국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기사를 취급하고 있다고 주장한다.<sup>5)</sup> 또한 다른 연

1) 이하 특별한 注記가 없는 한 날짜는 모두 양력을 가리킨다.

2) 『한성순보』를 잡지로 보는 견해도 있지만, 현재는 한국 최초의 근대적 신문이라고 규정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한성순보』에 대한 신문-잡지 논쟁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 참조. 이 광재, 1983 「漢城旬報 性格 論爭과 그 意義」, 『신문과 방송』통권 151호.

3) 이광린은 『한성순보』의 제36호 발행일자가 1884년 10월 9일이고, 갑신정변(12월 4일)으로 간행이 중단될 때까지 열흘에 한 번씩 계속 신문이 발간되었다면 5호가 더 나왔을 것으로, 총 41호까지 나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李光麟, 1968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對한 一考察」, 『역사학보』38, 19면 참조.

4) 우선 신문학의 관점에서 신문의 발간 경위와 정보원 등에 대한 고찰을 통해 신문 성격을 파악하려는 연구가 이루어졌으며(崔埈, 1983 「漢城旬報의 史的 意義」, 『신문연구』겨울 통권36호; 崔埈, 1969 「『漢城旬報』의 뉴우스源에 對하여」, 『韓國言論學報』2, 등을 참조), 개화론 등 신문 기사의 특정 주제를 선택하여 역사학 관점에서 이 신문의 문명 개화론적 성격을 분석하는 연구성과도 상당히 축적되어 있다(鄭大澈, 1984 「漢城旬報·周報의 開化方向에 對한 考察」, 『동아시아 문화연구』5; 李守龍, 1988 「『漢城旬報』에 나타난 開化·富強論과 그 性格」,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產業社; 文성규, 1990 「漢城旬報의 開化思想에 對한 研究: 内容分析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등을 참조). 또한 신문에 나타난 대외인식과 대외관계를 파악하려는 연구들도 있다(김병기, 2003 「개화기 논설에 비친 대외문제와 일본인식: 한성순보·주보를 중심으로」,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이해』(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국학자료원, 등을 참조).

5) 南時旭, 1980 「漢城旬報와 朝鮮의 對外關係: 紙面에 나타난 記事와 報道態度를 중심으로」, 『신문연구』여름 통권30호, 196면; 鄭晉錫, 1983 「漢城旬報 周報에 對한 研究」, 『신문연구』 겨울 통권36호, 102-105면; 崔貞和, 1987 「漢城旬報에 나타난 文明 開化論의 성격」, 동국

구들은 『한성순보』의 발간자들이 중국의 국방력이 서양에 열세인 것을 목격하고 도 중국 중심의 중화 세계질서에 자발적으로 편승하고자 하였다고도 본다.<sup>6)</sup> 또한 다른 연구에서는 『한성순보』는 객관적인 사실 보도를 중시한 신문이며, 청국에 대한 주종관계의 청산은 물론 외세에 대한 자주독립의 주권사상을 주창한 민족지도자의 의의가 크다고 주장한다.<sup>7)</sup>

이러한 『한성순보』가 갖는 주체성과 관련해서 1884년 4월 5일 중국 상해 『申報』는 「朝鮮近事」란 제목으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조선은 지난 겨울 10월부터 일본인의 말을 듣고 박문국을 세워 순보를 발간하고 있다. (중략) 필법이 親西歐적인 반면 중국을 경시하고 있으며 또 일본인에 대해서는 해명의 언사를 많이 신고 있어 조선에 거주하는 중국인이 몹시 분개하고 있다.”라고<sup>8)</sup> 하여 『한성순보』의 親日反清의 경향을 암시한 바 있다.

그렇다면 『한성순보』는 과연 어떤 신문이며 『한성순보』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인식은 도대체 어떤 것인가? 전술한 바와 같이 그 동안 『한성순보』에 나타난 대외인식과 대외관계를 파악하려는 기존 연구는 많았지만, 중국에 대한 인식은 부수

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0-41면을 참조. 이외에 『한성순보』는 한국을 속방시하는 중국의 종주권에 저항한다거나 청의 무력한 모습을 강조하는 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崔瑞泳, 1972 「韓國의 初期開化 運動과 新聞: 漢城旬報에 대한 研究」, 『신문 연구』봄 통권18호, 16면; 한보람, 2005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漢城旬報의 관련기사 분석」, 『震檀學報』100호, 131면).

- 6) 한설비, 2014 『漢城旬報의 清佛戰爭 보도에 나타난 개화지식인의 대외인식』,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참조.
- 7) 徐昌植, 1985 「漢城旬報의 性格에 관한 研究」,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132-133면; 金容德, 2000 「1880년대 조선 개화운동의 이념에 대한 검토: 한성순보·한성주보를 중심으로」, 『한일 공동연구총서』Vol. 2000 No.3, 48면, 59면을 참조. 이외에는 『한성순보』가 창간초기에 친일적 성향을 띤 것은 사실이었으나, 반드시 친일적으로 만들어진 것은 아니었다고 주장하는 연구도 있다(李秀恒, 1998 「漢城旬報의 對外認識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등을 참조).
- 8) 『申報』 제3941호(1884.4.5), 「朝鮮近事」, 1면. 원문은 다음과 같다. “朝鮮自去冬十月 聽日本之謀 設博文局 刊刻旬報 由協辦外務衙門金參判晚楨 (植의 誤記임: 인용자) 主其事 每十日刻一本 嘴贊泰西 而薄中國 又於日本人多解釋之詞 中國人在朝鮮者無不切齒痛恨”.

적으로 다루어졌을 뿐, 현재까지 이 주제를 집중적으로 분석 검토한 연구는 아직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우선 『한성순보』의 중국 관련 기사의 구성을 기준연구를 토대로 분석하고 나아가 기사의 서술 방향에 대해 집중적으로 살펴보려 한다.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성순보』에 나타난 중국에 대한 인식을 파악하고 『한성순보』의 성격 및 그것이 가지는 의의를 제시하는 데 연구 목적을 둔다.

## 2. 『漢城旬報』의 중국 관련 기사

『한성순보』의 지면은 주로 국내기사와 외국기사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 중 외국 기사가 총 기사 건수(1,568건) 중 73.2%를 차지하여 국내기사에 비해 월등하게 높은 비중으로 수록되었다. 이들 외국기사는 주로 외국의 신문·잡지·관보·전보 등에서 발췌되었는데 『한성순보』에 인용된 매체 중에서 중국의 정기간행물은 총 외국기사 1,150건 중 694건을 차지할 만큼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였다. 그 중 또 571건은 상해, 천진, 북경 등 중국 본토에서 온 것이다. 주목을 끄는 점은 일본 매체에서 발췌한 정보가 93건으로, 중국의 1/9도 안 될 만큼 작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이다.<sup>9)</sup> 이로 볼 때 1880년대 초반의 신문 내용은 중국발이 압도적인 상황이었고, 일본발 정보는 보조적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국가별 기사 분량을 보면 가장 많이 그것도 매호마다 여러 차례 언급 한 나라는 중국이었다. 『한성순보』의 各國近事를 분석해보면 중국은 435회의 압도적인 보도 횟수를 차지하고 그 다음이 베트남(165), 프랑스(71), 영국(56), 일본(53), 미국(47), 러시아(42), 독일(26) 순이었다. 그리고 막연히 '서양'으로 보도한 것이 33건 등으로 나타났다.<sup>10)</sup>

9) 『한성순보』의 분야별 기사건수를 집계하면 國內官報 342건(21.8%), 國內私報 72건(4.6%), 各國近事 1,133건(72.2%), 論說 17건(1%), 本局告白 4건(0.26%)의 수치로 나타난다. 한보람, 앞의 논문, 110면, 116면.

또한 전체 외국기사 중 청불전쟁 관련 기사는 총 561건으로, 전체 외국기사의 약 48%에 해당할 만큼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더불어 1883년 10월부터 1884년 10월까지 매호마다 지속적으로 압도적인 빈도수를 유지하며 청불전쟁 관련 기사를 수록하였다.<sup>11)</sup>

이러한 기사의 양적 구성에서 차지하는 중국에 대한 비율은 여려모로 당시 『한성순보』가 갖는 관심의 주요 대상이 중국이었음을 나타내고 있다.

이와 더불어 주목할 점은 『한성순보』는 중국의 신문기사를 그대로 발췌한 기사가 많았으므로,<sup>12)</sup> 중국의 관점에서 작성된 것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과 반대되는 입장도 수록하여 양쪽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노력했다는 것이다. 이는 『한성순보』가 지향하는 편집방향이 편향되지 않은 정확하고 객관적 정보 전달임을 나타낸다. 예컨대 청불전쟁 관련 기사 중 청과 프랑스의 상황을 모두 반영한 기사가 균형 있게 보도된 것을 볼 수 있는데, 6호(1883.12.20)에 실린 「西人論戰」과 「英將閒評」은 그 중의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이 날의 기사에서 『한성순보』에서 청-프랑스 간 전쟁이 벌어지면 프랑스가 불리한 입장이라는 내용의 논설이 수록된 후,<sup>13)</sup> 바로 다음 기사로 청은 프랑스와 전쟁하면 불리하다는 내용의 논설이 수록되고 있다.<sup>14)</sup>

이러한 보도 태도는 『한성순보』가 다각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청불전쟁 관련 정보를 입수하고 있었던 것에서도 볼 수 있다. 『한성순보』에 보도된 청불전쟁 관련 기사는 『한성순보』에 인용된 중국·일본 신문 매체 대부분에서 발췌되었을 뿐만

10) 鄭晉錫, 앞의 논문, 102면.

11) 한보람, 앞의 논문, 139면.

12) 필자가 『한성순보』에 전재된 중국 신문기사와 중국의 原 신문기사에 대한 비교 분석을 시도해 봤는데 양자 간에 큰 차이를 찾지 못하였다.

13) 『한성순보』 6호(1883.12.20), 「西人論戰」, 13면. “(프랑스)蓋以爲(中略)於此能操必勝之券也 (中略)實有大謬不然者”. (이하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신문 기사의 출처가 『한성순보』 일 경우, 발행호수와 발행일자만 표기함.)

14) 6호(1883.12.20), 「英將閒評」, 13면. “中國斷不能與泰西爲難 (中略) 如中國果調兵與法對壘深恐俄人忽萌覬覦之意 豈非前門拒虎 後門進狼乎”

아니라,<sup>15)</sup> 청불전쟁에 대해 가장 근접한 위치에서 정확한 사실을 취재했다고 평가되는 『申報』, 프랑스의 동향이나 유럽의 프랑스 주변국들의 청불전쟁에 대한 분위기, 세계의 여론 등 청불전쟁을 국제적인 시각으로 다루고 있었던 『字林滄報』에서 많이 채택되고 있었다.<sup>16)</sup>

청불전쟁 이외의 기사구성에 대해 살펴보면 『한성순보』가 청의 국제사회에서의 위상 변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성순보』는 당시 서구 열강 자체에 대한 관심보다는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던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국경에서 분쟁을 계속하고 있는 러시아에 다수의 지면을 할애하였으며 이들을 중심으로 국제정세를 파악하는 데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이는 다음 기사 구성에서 잘 나타난다.

첫째, 열강 간 국제관계를 다루는 기사는 총 32건인데, 프랑스 관련 기사는 16건, 러시아 9건, 영국 3건, 독일 2건, 미국 1건, 기타 1건이었다.<sup>17)</sup>

둘째, 중국과 러시아 양국 간 국경 분쟁에 보이는 지속적 관심이다. 『한성순보』는 창간호부터 지속적으로 관련 기사를 보이며 변화되는 정세를 소개하고자 노력했다.<sup>18)</sup>

15) 청불전쟁 관련기사는 『申報』, 『字林滄報』, 『中外新報』, 『華字日報』, 『循環日報』, 『郵便報知新聞』, 『時事新報』 등에서 발췌되었다.

16) 『申報』는 청불전쟁 때 러시아인을 고용, 전쟁 특파원으로 戰地에 파견하여 청불전쟁 실황을 상세히 취재, 보도한 것으로 명성을 높인 신문이었고, 『字林滄報』의 영문지인 『North China Daily News (字林西報)』는 당시 전세계적으로 독보적인 연결망을 가지고 있던 영국 로이터 통신과 계약을 맺으며, 그 뉴스들을 독점 게재하고 있었다. 따라서 『字林滄報』는 새로운 국제 뉴스들을 신속하게 보도할 수 있었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 청불전쟁 관련기사 중 『申報』에서 인용된 것은 총 210건으로 전체 청불전쟁 기사건수 559건의 약 37%를 차지하고 『字林滄報』에서 인용된 청불전쟁 관련기사는 총 94건으로, 청불전쟁 관련보도의 17%를 차지한다. 한보람, 앞의 논문, 140면.

17) 한보람, 위의 논문, 135면.

18) 청-러시아 관련기사는 다음과 같다. 「琿春信息」(1호, 1883.10.31), 「邊將中餕」(3호, 1883.11.20), 「俄邊近報」(5호, 1883.12.9), 「俄人無厭」(6호, 1883.12.20), 「俄人臆度」(6호, 1883.12.20), 「俄人可慮」(7호, 1883.12.29), 「人絕路殊」(7호, 1883.12.29), 「西郵近耗」(16호, 1884.3.27), 「俄國軍艦」(19호, 1884.4.25), 「俄人實邊」(23호, 1884.6.4).

위의 사실을 종합해 보면 『한성순보』가 동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의 중국이 새롭게 대두한 서구 열강 세력에 의해 보이는 위상변화에 큰 관심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청이 보여주는 모습에 대해 편향되지 않은 정보를 확보하기 위해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보도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태도를 가지려고 노력했음도 알 수 있다.

### 3. 『漢城旬報』의 중국 인식

『한성순보』에 중국 관련 독자적인 사설이 없는 관계로 본 연구는 주로 중국에 대한 보도 태도, 즉 『한성순보』에서 선별한 기사를 통해 이루어졌다. 이는 『한성순보』의 편집자가 기사 선별을 통해 자기 의견을 피력한다는 편집 입장은 설명한 바가 있으므로<sup>19)</sup> 연구의 타당성과 엄밀성을 확보하는 데에 무리가 없다고 사료된다. 다시 말해, 『한성순보』에서 인용된 정보에 대해 특별한 논평이 없는 경우 원기사와 기본적으로 같은 인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한성순보』에 인용되는 정보의 성향을 통해 당시 중국에 대한 기본 인식을 유추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 1)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기본적인 인식

##### (1) 중국 인식

『한성순보』에서 중국은 서양 열강에 비해서는 후진적이지만 미래에 강국이 될 희망이 있는 대국으로 묘사되었다. 예컨대 11호(1884.2.8)의 「中西關係論」이라는 기사는 미국인 선교사 겸 저널리스트인 앤런(Young John Allen, 林樂知)의 글을

19) 예컨대 『한성순보』의 편집자가 33호(1884.9.10)의 「西友論中法交涉事」란 글에서 “이상은 모두 서양인의 편지인데, 번역해 실어서 프랑스인의 행위를 각국이 다 옳게 여기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적은 바가 있다. “按 以上皆西信語 譯而登之 以見法人之行爲各國 皆不直之 至中國奈何以下云云則吾不謂然”

전재하면서,

“중국은 아시아 동쪽에 있는 나라 가운데 가장 큰 나라이다. (중략) 그러나 세계에서 가장 가난하고 약하기가 중국 같은 나라도 없다. 옛날 영국이 아직 나라를 세우기 전에 중국은 이미 강대국이라 일컬었으며, 또 오래 전에 나라를 세운 것도 중국만한 나라가 없다. (중략) 그런데도 영국의 부강이 중국이 제일 부강했을 때 보다 더 큰 것은 왜 그런가. (중략) 온 세계에 철도와 전보가 다 있고, 큰 나라로서 아직 없는 나라는 중국뿐이다”고 하여 중국의 낙후된 모습을 보도하였다.<sup>20)</sup>

이런 논조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중국의 발달한 문물은 오래 전부터 멀리 전파되었다. (중략) 그런데 오늘의 형세로 말할 것 같으면 서양 여러 나라만 못하다.”<sup>21)</sup> “泰西(서양)의 각국이 (중략) 급진적으로 나날이 성대해져서 재용이 충분하고 병사가 용맹하여, 일약 중국이 따라갈 수 없게 되었다.”<sup>22)</sup> “태서의 기예가 날로 정밀해지는 것이 이 길에 마음을 쏟게 되는 사람들이 있어 물품이 홀륭하면서도 값이 싸게 만들기 때문이다. 이는 중국이 언제나 구볍에만 얹매여 발전이 없는 것과는 다르다.”<sup>23)</sup> “그러나 (중국이) 소유한 병선은 (중략) 만약 서양 각국의 병선과 비교하면 함께 논할 수 없다.”<sup>24)</sup>

『한성순보』는 중국을 서양 열강에 비해 후진적인 나라로 인식하였고, 중국의 외

20) 11호(1884.2.8), 「中西關係論」, 9-11면. “中國居亞細亞之東 最大國也 (중략) 然今天下最貧最弱之國 又莫如中國也 英國未能立國之前 中國已稱大國 又立國之最古者 又莫古於中國也 (중략) 然英之富強較中國最大之時而更大 (중략) 普天之下 銭路電報所在皆有 僅餘一大國未辦 非中國而何”

21) 23호(1884.6.2), 「富國說下」, 15-16면. “中國聲明文物久播遐邇言乎 地則廣甚言乎 民則庶甚而且地多膏腴 人多聰慧 宜兵強國富強不可及矣 乃以今日之勢論之 曾不若泰西諸國” (『한성순보』 22호(1884.5.25) 19-21면의 「富國說上」이란 기사가 중국 『萬國公報』에서 인용했음을 상기하면 「富國說下」도 『萬國公報』에서 전재한 것으로 짐작된다.)

22) 10호(1884.1.30), 「在上不可不達民情論」, 11면. “泰西各國開闢後於中原 而其駿駿日盛 財充用足 兵雄土強 一若中國有不能及其者”. 『滬報』에서 전재하였음.

23) 18호(1884.4.16), 「技藝院」, 20면. “故泰西技藝日精 以有人究心此道 使物美而價廉 非如中國常拘成法也”. 출처 표기 없음.

24) 11호(1884.2.8), 「論中國戰船」, 23면. “然 (中國) 所有兵船 (中略) 若以與泰西各國之兵船相較 則殊有不能相提並論者矣”. 上海論說.

교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였다. “지금 억조에 달하는 천하의 수많은 민중은 그 절반이 서국의 압제를 받고 있지만, 중국에 칭신하는 자가 드물다”,<sup>25)</sup> “여태 까지 중국의 책봉을 받던 남양 여러 섬이 갑자기 서양 사람에게 점령되어, 嘉靖 이후로는 조공하는 배도 들어오지 않고 冊使도 통래하지 않는다”,<sup>26)</sup> “사방의 屏藩이 날로 점차 침략되어, 琉球는 이미 멸망하였고, 朝鮮은 곤고하며, 邏羅와 緬甸은 모두 外屬이 되어버리겠고, 현재 월남국은 또 프랑스인이 곧 삼키게 될 것이다”.<sup>27)</sup>

뿐만 아니라 『한성순보』는 중국의 내정도 혼란 그 자체임을 보였다. 예컨대 10호(1884.1.30)를 보면 『上海報』의 중국 사람이 쓴 글을 전재하면서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임금에게 아첨하며 비위를 맞추고 임의대로 망언을 내뱉는 자가 이 중원에 많기 때문에 수재와 한재 등 큰 재해가 각 성에 거의 모두 발생하였다. (중략) 會匪(비밀 결사의 匪徒), 齋匪(齋敎의 신도), 裁兵(해고된 병사), 撤勇(해체된 임시 군대의 병사)에서부터 본적이 없는 실업자가 날로 더욱 많아지며, 도적의 죄안이 총총 침침이 드러난다. 내외의 관리들은 비록 정도를 지켜 아무하지 않는 사람과 근면하고 나랏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이 없지는 않으나, 고리타분한 자와 탐욕스럽고 비루하며 자리만 차지하고 녹만 받아먹는 자도 또한 끊이지 않는다.”<sup>28)</sup>

심지어 중국과 프랑스가 싸우기 시작한 후 중국 내륙 지방에는 도적 폐가 많아져서 농민과 상인들을 약탈하기 때문에 중국에서 살기가 힘들어, 일본에 피난 가

25) 8호(1884.1.8), 「中西時勢論」, 20-22면. “今天下之大億兆之衆半受制於西國 爛稱臣於中邦”. 중국 公報館의 論說.

26) 10호(1884.1.30), 「論中國兵船僅足自守海口」, 12-13면. “南洋諸島向受中國之封者 忽焉爲泰西所攘據 嘉靖以後 貢舟不入 冊使不通”. 출처는 알 수 없으나 글 중에 “法廷陰謀詭筭 撥遣兵船 伺我於海口之外”라는 표현을 쓰는 것을 보면 중국 사람이 쓴 글로 추정될 수 있음.

27) 10호(1884.1.30), 「論紅光燭天」, 11-12면. “四面屏藩 日漸侵削 琉球既滅 朝鮮幾困 邏羅緬甸皆將外屬 而日下越南國又將爲法人所吞併”. 『上海報』에서 전재하였음.

28) 10호(1884.1.30), 「論紅光燭天」, 11-12면. “以詔媚阿諛逢迎人主者之率意妄言 當此中原多故水旱偏灾幾於各省 (中略) 會匪齋匪裁兵撤勇以及遊手無籍之人日益衆多 盜賊之案層見疊出 內外臣工雖不乏守正不阿與夫勤幹公忠之士 然而尸居餘氣以及貪鄙不職者亦不乏人”

는 중국 사람도 적지 않다고<sup>29)</sup> 보도하였다. 한마디로 당시의 중국 상황을 보면 안팎으로 곤경에 빠져 자국 내의 문제를 처리하기에도 급급한 실정이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순보』는 중국을 비롯한 동양문명에 대해 큰 믿음과 신뢰감을 드러냈으며 중국의 미래는 아직 희망적이라고 피력하였다. 예컨대 8호(1884.1.8)의 「中西時勢論」이라는 기사에서 “비록 그렇기는 하나 物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원위치로 돌아오는 법이요, 亂이 극에 달하면 반드시 다스려지는 법이다. 强은 곧 弱의 시초요, 약은 곧 강의 시초이다. 泰西는 오늘날 강하다고 하지 않을 수 없고, 우리나라(=중국: 인용자)는 오늘날 또한 약하다고 이를 만하다. (중략) 과감하게 기회를 잃지 않고 또한 시기를 잃지 않는다면, 서국과 어깨를 나란히 할 뿐만 아니라 동방에 당당하게 자리 잡아, 장차 중국의 기반을 영원히 튼튼하게 닦고 천하에 우뚝 설 수 있으리라”고<sup>30)</sup> 하였으며 창간호(1883.10.31)의 「漢學西行」에서 한학이 서양에 유입되는 것을 “하늘이 장차 斯道로써 온 세계의 문운을 계발하려는 것인지도 모른다”고 기뻐하고 있다.<sup>31)</sup>

이와 같은 논지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6호(1883.12.20)에서는 『中國公報』의 논설을 인용하면서, “진실로 능히 발분하여 自強함으로써 이 시운을 맞이하면 중국에 앓아 외국을 조종하게 될 것”이고, “극력으로 우리 중국을 도모하려는 저들도 마침내는 우리 중국에 이용이 될 뿐이다”고<sup>32)</sup> 주장하였으며 16호(1884.3.27)에서는 심지어 “중국이 태서와 통상한 뒤부터 서법을 본받는 데 힘을 다하고 있으니 윤선과 총포와 기기의 제조와 측량, 항해, 격차, 산법, 전보, 광업, 행진, 병법 같은 것은 날마다 발전하여 이제는 태서와도 막상막하의 위치에 있

29) 33호(1884.9.10), 「華人避難于日本」, 14면. “中法開釁以來 中國內地多有草賊 掠奪農商”. 일본 神戶의 『郵信日報』에서 전재했음.

30) 8호(1884.1.8), 「中西時勢論」, 20면. “然未有物極而不反 亦未有亂極而不治者 强即弱之漸弱即強之始 泰西今日不可謂不强矣 我國今日謂亦可似弱矣 (中略) 果不失機 亦不失時 則不第比肩西國 雄踞東方 將必永奠中邦 立天下也”

31) 1호(1883.10.31), 「漢學西行」, 4면. “可謂漢學之西行而天將以斯文啓全地球之奎運也”

32) 6호(1883.12.20), 「通籌天下大局策引」, 14-15면. “彼之極力以圖我中國者 終將爲中國用耳(中略) 誠能發憤自強 趟茲時會 將見居中馭外”

다”는 은근한 자부심을 내비치는 글을 게재하기도 하였다.<sup>33)</sup>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의 낙후되고 후진적인 모습을 보여주는 기사는 대부분이 중국 신문의 중국 사람이 쓴 글을 전재한 것이고, 그 내용이 중국을 비판하려는 것이 아니라 중국이 서양에 뒤진 이유를 찾고 중국의 진로를 모색하려는 것이다. 이는 대체로 『한성순보』가 비호도 경시도 아닌, 객관적으로 중국을 파악하고 중국을 비롯한 동양문명의 진로를 같이 고민하는 편집 태도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sup>34)</sup>

이와 더불어 『한성순보』는 서양문명에 대해 완전히 인정하고 지지하는 입장도 아니었다. 서양 근대 문물에 높은 관심을 보이는 동시에, 오직 힘으로 국제질서를 유지하려는 서양 열강에 대한 비판 의식도 피력하였으며 아울러 동양문명에 대한 인정과 기대를 보여줬다. 예컨대 8호(1884.1.8.)에서 『中國公報』의 논설을 인용하면서 “태서는 1백 수십 년 동안 화기를 제작해서 수백만의 인민을 해쳤으니, 仁者로서는 진실로 차마 못할 바요, 智者로서도 하지 못할 바이다”고 지적하며, 중국이 부강해지면 “꼭 저들의 허물을 뒤밟아서 우리의 걱정을 남겨서는 안 된다”고, 굳이 서양처럼 “자질구레한 기계 제조를 富로 삼고, 곳곳에 할거하는 것을 强으로 삼지 않아도 된다”고 강조하였으며,<sup>35)</sup> 29호(1884.8.1)의 「西人助西」에서는 말마다

33) 16호(1884.3.27), 「各海口宜設西醫學堂論」, 19면. “中國自與泰西通商以來 仿效西法 不遺餘力 如輪船 鐮砲 制造 機器 測量 航海 格致 算法 電報 鑛務 行陣 兵法 夫固蒸蒸日上 可以頡頏泰西矣”

34) 물론 여기서 지적해야 할 것은 『한성순보』의 편집 태도를 일정 기간 『한성순보』 제작에 함께 참여하는 일본인 井上角五郎의 편집 태도와 혼동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성순보』의 편집 태도가 중국에 대해서는 호의적이었지만 일본인 井上은 이와 다르다고 생각된다. 다른 기간 대와 비교하면 井上이 『한성순보』 제작에 함께 참여하는 1884년 초, 즉 8호(1884.1.8)에서 「桑台失守」란 기사가 보도된 후, 10호(1884.1.30)와 11호(1884.2.8)에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집중된 점을 상기하면 해당 기간 『한성순보』 제작에 함께 참여하는 일본인 井上이 조선에서 중국의 영향력을 약화하려는 저의도 있겠다고 하겠다. 『한성순보』 10호에 「華兵犯罪」, 「中西法制異同說」, 「洋務首在得人論」, 「在上不可不達民情論」, 「論紅光燭天」, 「論中國兵船僅足自守海口」; 11호에 「銀號倒閉」, 「中西關係論」, 「論滬市衰敗」, 「論美國阻絕華商」, 「論中國戰船」 등 중국에 대해 부정적인 기사가 다른 기간 대에 비해 집중되어 있다.

프랑스를 높이고 중국을 억제하는 영국 사람을 통렬하게 배척하며 비판하였다.<sup>36)</sup>

이와 동시에 14호 (1884.3.8)의 「泰西文學源流考」를 통해 “서양의 문학은 (중략) 대저 그 근원은 동방에서 나왔는데 다만 서양인들이 널리 보급하여 유전시킨 것이다”고 동양문명에 대한 자부심을 보여주었으며<sup>37)</sup> 「亞細亞洲總論」에서 일본 金子彌兵衛의 논설을 인용하면서 동양이 서양보다 낙후되게 된 원인을 분석하는 한편 “유럽의 문물은 실로 아시아주에서 준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아시아 전체의 여러 나라가 새로운 계획을 생각하고 心力を 합하면 “부강한 유럽과 자웅을” 다투 수 있을 것이라는 강한 자신감을 드러낸 바도 있다.<sup>38)</sup>

## (2) 중국인 인식

『한성순보』에서 중국인은 고난에 허덕이고 있지만 智力과 才思가 있고 언젠가는 충분히 부활할 수 있는 미래가 밝은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예컨대 8호(1884.1.8) 「華人可爲工局董事論」이란 글을 보면 『上海報』의 기사를 전재하면서 당시 중국인의 생활 상태와 사회 지위 등에 대해 다음과 같이 보도하였다.

“工部局의 세입 가운데 중국인이 납세한 것이 항상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는데도, 중국인은 피선인이나 선거인이 될 수 없다. 그리고 上海 가운데 (중략) 한 공원이 있어, (중략) 거류인은 마음대로 가 노닐게 하면서 중국인만은 귀천을 막론하고 놀고 구경하는 일을 허락하지 않는다. 혹 중국인이 그곳에 들어가기를 요구할 경우는 局內의 경찰관이 반드시 공원 밖으로 내쫓고 혹은 매질까지 한다. (중

35) 8호(1884.1.8), 「中西時勢論」, 21-22면. “泰西興百數十年之器 狹數百萬之生靈 仁者固所不忍 智者亦所不爲 (中略) 似不必效彼之尤 賦我之患 (中略) 豈但區區製造爲富 處處割據爲強哉”

36) 29호(1884.8.1), 「西人助西」, 9면. “循環日報登中外新聞雲 英人某致字林報館一書 雖處局外而語語揚法而抑華 不啻若自法人之口出 本館欲痛闢之 因細譯之”

37) 14호(1884.3.8), 「泰西文學源流考」, 12면. “泰西文學雖派分多門 (中略) 益其源出於東方 特西人推廣而流傳之耳”

38) 14호 (1884.3.8), 「亞細亞洲總論」, 11-12면. “按 亞細亞洲混沌之關 人文之興 特爲五洲之最矣(중략) 歐洲之文物實亞洲之賜 而亞洲文物之先于歐洲二千餘年”

략) 공부국에서 중국인을 각박하게 대하는 것이 극에 달했다 하겠다. 아, 중국인이 외국에서 이런 구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견딜 수 없을 것인데, 하물며 조계는 우리들의 내지로서 과세의 절반 이상이 중국에서 나옴에랴.”<sup>39)</sup>

즉, 비록 자국 땅이지만 당시 중국인들이 온갖 구박을 받는데도 伸雪할 방도가 전혀 없었고, 사회적 처우가 외국인과 전혀 비교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멀리 고향을 떠나 이국땅에서 살 길을 찾는 중국인의 처우는 더욱 비참하게 묘사되었다. 미국 같은 선진국에 가려면 제한 또는 금지를 받아서 쉽게 가지 못하고,<sup>40)</sup> 페루 같은 중진국에 가서도 능욕을 받으며 사는 것이었다.<sup>41)</sup> 심지어 속아서 돼지새끼처럼 막 노동자로 외국에 팔려 생명을 잃은 사람도 많았다고 보도되었다.<sup>42)</sup>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성순보』에서는 중국인이 그래도 “智力과 才思가 西國에 그리 못지 않”은<sup>43)</sup> 희망적인 집단으로 묘사되었다. 5호(1883.12.9)에서는 미국 신문을 전재하면서 중국사람이 미국에서 부자가 되는 소식을 전했으며,<sup>44)</sup> 6호(1883.12.20)는 또 「論華人三興致富」란 글에서 “가령 중국도 유럽의 풍속처럼 大商을 관에서 보호하고 상인의 사업을 관에서 도와주었다면 중국인의 총명과 才智로 그들과 경쟁하여 해외의 이익을 歐洲 사람들과 나누었을 것이다”고<sup>45)</sup> 지적하였다.

39) 8호(1884.1.8), 「華人可爲工局董事論」, 22-23면. “工部局稅入中 係中國納稅者常居三分二以上 (中國人) 猶不能爲被選人及議(選의 誤記인 듯함: 인용자)舉人 又上海中 (중략)有一園 (중략)任其居留人之叙暢 但中國人毋論貴賤 不許遊觀 或中國人因過而要入 則局內警察官必驅逐園外 或加鞭撻 (중략)工部局之苛待中國人可謂極矣 哀呼 使中國人在外而遇此 猶且不堪 況租界在我內地 課稅太半出自中國”

40) 11호(1884.2.8), 「論美國阻絕華商」, 15-16면. “美國議定限禁華工 (중략) 其辱凌中國已不齒 (“啻”의 誤記인 듯함: 인용자) 於黑人 (中略) 其殘待華人更不若外國”. 『滬報』에서 인용했음.

41) 23호(1884.6.2), 「稟詞附登」, 8면. “華入之在秘國爲傭者則有迫勒之苦 爲商者則有刦殺之憂 抑”. 『循環日報』에서 인용했음.

42) 6호(1883.12.20), 「論華人三興致富」, 17-18면. “西洋招工館收賣豬仔 誘騙出洋 因得大售其術 殘虐斃命者不知凡幾”. 『上海新聞』에서 인용했음.

43) 8호(1884.1.8), 「中西時勢論」, 20-22면. “我中國幅員之廣 生齒之繁 聲名文物已久著于寰 國 智力才思不多讓于西國”

44) 5호(1883.12.9), 「華人致富」, 14면.

이를 통해 비록 『한성순보』에서 중국사람이 서양사람과 비교하면 “대부분이 무료하게 지내고” 있고 재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하는 것으로 인식되었지만 그래도 “기예가 많고 勤苦를 잘 견디는 것 역시 서양 사람들보다 월등”히 총명한 집단으로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sup>46)</sup>

또한 여기서 한 가지 더 지적해야 할 것은 이러한 묘사가 물론 『한성순보』의 주관적인 보도라기보다는 기 보도된 중국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보여진 보도 성향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한성순보』가 기본적으로 중국과 중국인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그 내용의 묘사 또한 긍정적인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한성순보』의 이러한 편집 태도는 다음 기사를 보면 더 잘 알 수 있다. 20호(1884.5.5)의 「美國金山」에서 『한성순보』가 『中國公報』를 전재하면서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나가 있는 중국 사람들이 타국에서도 속박 받지 않고, 자신들의 의지대로 일하고 잘 사는 모습을 보도하였고,<sup>47)</sup> 또 2호(1883.11.10)의 「從宜從俗」에서는 해외에 나가 있는 중국인 외교관이 현지 풍속에 따라 행동하는 모습을 보고 “이는儀節은 편리에 따르고 행사는 대중에 따른 것이다”고 칭찬하면서 “각국에는 우리보다 먼저 이 같은 풍조가 유행되고 있는데, 어찌 우리만이 그렇지 못하는가.”라고 안타까워하고 있었다.<sup>48)</sup> 만약 『한성순보』가 중국을 얕잡아보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있고, 중국이 약자인 새로운 국제질서를 인식시키려는 의도가 있었다면 이런

45) 6호(1883.12.20), 「論華人三興致富」, 17-18면. “使中國人亦如歐人之俗 國有大商 官爲保護 商之營謀 官爲助理 吾恐以中國之聰明才智 迭出其間 海外之利 當早與歐人分之矣”. 『上海新聞』의 論說을 전재하였다.

46) 22호(1884.5.25), 「富國說上」, 19-21면, 『萬國公報』에서 인용했음; 23호(1884.6.2), 「富國說下」, 15-16면.

47) 20호(1884.5.5), 「美國金山」, 13-14면. “而華人到彼 亦得自主 別無管束 (中略) 或開設鋪肆 而貿易 均無阻礙 內中儘有積成富戶者 華人於該地設立會館六所 遇貧乏華民初至 則量資助 以敦鄉誼”

48) 2호(1883.11.10), 「從宜從俗」, 8면. “(英)太子妃花市之旁設有中國雅集 曾襲侯紀澤之夫人 (中略) 掌理其事 所設蓬帳皆中國款式 文綵輝煌 世所罕有 華人侍者皆奉茶點以待 兼有名茶出售 (中略) 盖禮從宜 使從俗 各國已有先我行之者 我何爲獨不然”

기사를 게재할 이유가 없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외에도 『한성순보』는 중국 국내의 정부 관리에게도 칭찬을 아끼지 않았다. 예컨대 7호(1883.12.29)의 「奉使不辱」이란 글에서 영국·프랑스·러시아 삼국 주재 중국 공사 曾紀澤이 프랑스와의 담판에서 章程에 따라 침착하게 한결같이 力爭하는 모습을 보도하였고 “이러한 신하가 있음은 진실로 中國의 다행함이다”라고,<sup>49)</sup> “진실로 曾侯는 강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라 할 수 있겠다”고<sup>50)</sup> 높이 평가하였다. 8호(1884.1.8)에서는 또 어명으로 廣東에 군사 방위 관련 사무를 처리하려 파견된 彭玉麟에 대해 “몸의 고달픔도 돌아보지 않고,” “일체 親兵은 모두 기율이 근엄하여 민정이 편안하였다”고 하여 彭玉麟이 군대를 엄정하게 다스린다고 칭찬하였다.<sup>51)</sup>

이러한 칭찬은 조선에 와 있는 중국인 관리에게도 적용되었다. 14호(1884.3.9)에서 『한성순보』는 중국 欽差提督 吳長慶 일행들이 귀국하였을 적에 “제독이 서울에 머무른 지 벌써 3년이 지났는데, 군민들이 편안하였고 엄명한 법도가 있었으므로 그가 떠나자 국인들이 그리워하였다”고 보도하였다.<sup>52)</sup> 뿐만 아니라 조선에서 재해가 발생할 때 조선 주재 중국 군대가 주는 도움에 대해 “요사이 성내에 가끔 화재가 발생하였는데 兵丁과 외국 사람의 진화에 힘입어 全燒되지 않았는가 하면, 중국 본진에서 매번 혜택을 베풀어 화재를 당한 사람에게 돈 약간과 매호에 쌀 약간씩 구제해 주므로 화재를 당한 사람들이 매우 감사하고 있다”고 보도하여 감사의 뜻을 표한 바도 있다.<sup>53)</sup>

49) 7호(1883.12.29), 「奉使不辱」, 14-16면. “(曾襲候)自始至今 堅執章程 一似南山可移 鑄案不動 風搖雷劈奈之何 令法國棄之不能 執之不可 有臣如此 誠中國之幸矣”

50) 7호(1883.12.29), 「曾襲侯不畏強禦」, 19면. “洵可謂曾侯不畏強禦矣”

51) 8호(1884.1.8), 「彭宮保抵粵」, 13면. “彭大司馬自到粵以來 籤防安民 事事不辭勞瘁 (中略) 巡閱兵勇 整飭戎行 凡事必躬必親 勤加訓練 (中略) 自彭宮保前廳止後 一應親兵均紀律鍾嚴 民情安堵”

52) 14호(1884.3.9), 「京畿道觀察使狀啓」, 1면. “提督留京已經三載 軍民相安 嚴明有制 其去也 國人思之”

53) 6호(1883.12.20), 「華陣恤災」, 7면. “近日城內種種失火 賴兵丁及他國人救滅 未嘗延燒 且自大帥陣 每致優恤 每人給錢若干 每戶給米有差 被灾之人甚為感頌矣”

## 2)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중국 보도 논조

### (1) 중국과 프랑스 : 청불전쟁

중국에 대한 『한성순보』의 호의적이고 친화적 입장은 당시 중국과 대치중이던 프랑스에 대한 보도 입장에도 잘 나타난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한성순보』에서 비판적 입장을 가지고 있었다.

이는 우선 청불전쟁 관련 보도에 잘 나타난다. 프랑스의 월남 침공에 대해 『한성순보』는 “프랑스 사람이 (중략) 위협과 유혹으로 월남과 우호조약을 체결하여 중국이 藩邦을 상실하도록 하고 월남의 사직을 빙터로 화하게 하였으며, (중략) 이로써 천하가 장차 편할 날이 없게 되고 四海가 영원히 평화를 누릴 가망이 없게 되었다”고 논평하여 강한 반감을 드러냈다.<sup>54)</sup> 이러한 입장은 『한성순보』가 인용한 「越南三宣提督劉警師檄」이란 글에서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우리 월남은 (중략) 황제의 은택 아래 의탁해 온 지 벌써 수천 년이 되었고, 중국도 우리를 지성으로 대우하고 은혜로 감싸주며 골육처럼 아껴주고 한 가정처럼 친근하게 대해 주었다. (중략) 이 어리석은 프랑스 오랑캐가 (중략) 감히 함부로 우리나라를 잠식하여 방자하게 집어삼키려고 하니, 흉악하고 독하기가 큰 뱀과 같고 탐학하기가 큰 돼지보다 더하다.”<sup>55)</sup>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국과 프랑스에 대한 청불전쟁 당사국인 월남의 인식과 태도는 하늘과 땅의 차이라 할 수 있다. 중국이 “가벼이 전쟁을 벌이기 좋아하지 않는” 정의의 화신인 반면 프랑스는 “월남이 대대로 중국에 조공해 온 것을 뻔히 알고도 감히 강세를 믿고 약세를 무시하여 조약을 위배하고 전쟁을 벌여”, 그야말로 사악의 대명사로 인식되었던 것이다.<sup>56)</sup>

54) 4호(1883.11.30), 「詳述黑旗戰捷事」, 9면. “法人(中略) 既脅越人 誘與立約 使中國失其藩服 越社漸成墟邱 由是(中略) 傀天下將無一日之安 薄海永乏太平之望”

55) 9호(1884.1.18), 「越南三宣提督劉警師檄」, 16-17면. “我越南(中略) 托於帡幪覆嶠之中者 數千年於茲 中國亦待之以誠撫之惠 愛如骨肉而親若家庭(中略) 蠢茲法夷(中略) 輒敢肆爲蠶食 恣厥鯨吞 毒比長蛇 貪逾封豕”

56) 5호(1883.12.9), 「憲諭要聞」, 17면. “中國不肯以小節細故 輕動干戈(中略) 法人包藏禍心 明知越南世奉中國朝貢 竟敢恃強凌弱 違約稱兵”

이리하여 『한성순보』에서는 프랑스의 동정에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고 있으며 5호(1883.12.9)의 「嫁禍宜防」, 10호(1884.1.30)의 「奪地宜防」 등 글에서 보여준 바와 같이 중국이 프랑스의 계략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고 있었다.<sup>57)</sup> 프랑스의 월남 침공에 대해서는 프랑스가 “천하의 적분”을 불러일으켰고,<sup>58)</sup> “아시아주 사람들은 프랑스에 대해 모두 분노가 치밀어 치를 떠는 실정이다”고<sup>59)</sup> 지적하여 강렬한 아시아 유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sup>60)</sup>

중국과 프랑스에 대한 『한성순보』의 이런 확연하게 다른 태도는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8호(1884.1.8) 「防法論」에서 프랑스 사람이 탐욕스럽고 하는 일마다 부강을 믿고 날뛰며 세계 각국이 모두 이런 프랑스를 옳지 않게 여긴다고 지적하였고,<sup>61)</sup> 19호(1884.4.25) 「法艦行程」에서는 프랑스가 중국에 대해 영국 돈으로 6백만 파운드의 군비를 요구했다는 소식을 전하면서 “아! 프랑스 사람들의 무뢰함이 이 지경까지 이를 수 있단 말인가”라고 개탄까지 하였다.<sup>62)</sup>

57) 5호(1883.12.9), 「嫁禍宜防」, 12면; 10호(1884.1.30), 「奪地宜防」, 15면; 15호(1884.3.19), 「法軍毒計」, 4-5면.

58) 6호(1883.12.20), 「義憤同伸」, 8면. 이 기사에서 『한성순보』가 『美國近信』을 인용하여, 미국에 있는 중국사람이 中國이 越南의 일로 인하여 프랑스와 앞으로 틀어질 것이라는 말을 듣고, 가난한 사람은 힘으로, 부자는 자금으로 각각 힘대로 國家에 報效(힘써 보답함) 하려는 내용을 게재하였다. “華人之在美國舊金山者 聞中國因越南之事 與法國齟齬 特募義勇 以報効國家 (中略)貧者出力 富者出資 (中略)俟有戰耗 (中略)馳回中國焉 淘如是 則正黑旗檄所謂天下之積憤久矣 殺氣隱伏 如火待燃 衆怒難犯 法人何不思之”

59) 4호(1883.11.30), 「叛黨可誅」, 7면. 이 기사에서 『한성순보』는 중국을 도와 프랑스를 치려는 日本 사람의 사례를 소개하였는데 비록 “일본 정부가 그 제의를 받아들이지는 않았으나, 그 사람의 높은 의기는 참으로 감동이 될 만하다”고 『滬報』를 인용하여 지적하였다. “凡在亞洲之人 無不憤氣填胸 皆裂髮指 曾聞日本人有欲助中攻法者 雖日廷未準 亦足感其高義也”

60) 이러한 아시아 유대 의식은 26호(1884.7.3)의 「隣交論」에 더 잘 드러난다. 이 기사를 통해 친일반청적이라기보다 청·일 양국이 협력하여 아시아주 백 년 아래의 衰運을 떨치고 후일의 큰 판도를 열기를 기대하고 있던 『한성순보』의 간절한 바람을 읽을 수 있다.

61) 8호(1884.1.8), 「防法論」, 20면. “蓋以遏法人貪得無厭之心 (中略) 但法人往往不遵公法 不顧名義 (中略) 法人事輒恃強 久爲各國所不直 今日之事 曲又在於法”

62) 19호(1884.4.25), 「法艦行程」, 4면. “噫 法人之無賴乃至此耶”

이밖에도 『한성순보』에 중국과 관련한 독자적인 논설은 없지만 「西友論中法交涉事」란 글에서 “중국 조정의 행위를 보면 상심을 금할 수 없다. (중략) 이것은 중국이 가벼이 전쟁을 일으키고자 아니함이니, 어짊이 지극하고 정의가 극진해서 아무리 작은 것에도 미치지 않음이 없음이다”고 자기 의견을 피력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사의 마지막 부분에 “이상은 모두 서양인의 편지인데, 번역해 실어서 프랑스인의 행위를 각국이 다 옳게 여기지 않음을 드러내고자 한다”고 적었는데 이를 통해서도 『한성순보』 편집진의 우호적인 중국 인식을 알 수 있다.<sup>63)</sup>

이처럼 『한성순보』는 프랑스에 대하여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친청반불적인 기사를 다수 내고 있었다. 이는 중국의 속국으로 인식되던 베트남이 프랑스에게 위협당하는 것에서 함께 분노를 느끼고 있고, 서양 세력 앞에서 동양 문명의 진로를 중국과 같은 입장에 서서 고민하는 『한성순보』 발간자들의 정세인식 및 편집성향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다시 말해 청불전쟁 보도에 보이는 청과 프랑스에 대한 이러한 이해방식은 『한성순보』의 발행의 주체인 박문국의 상위기관인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의 인식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이는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조직과 구성원을 보면 더 쉽게 이해된다.

『한성순보』 창간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은 閔泳穆(1826-1884)이었고, 박문국의 상위기관인 同文學 협판 겸 장교인 김만식은 영선사로 청에 나가 있던 金允植(1835-1922)의 從兄이었는데, 대체로 중국에 호의적 입장을 가지고 있던 개화지식인들이었다.<sup>64)</sup> 이들은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 독판과 동문학 장교로서 『한성순보』 기사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한성순보』에서 친청반불적

63) 33호(1884.9.10), 「西友論中法交涉事」, 14-15면. “觀中朝之行爲 不禁爲之傷心 (中略) 是中朝之不願輕開戰禍 可謂仁至義盡無微不至矣 (中略) 按 以上皆西信語 譯而登之 以見法人之行爲各國皆不直之”

64)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독판은 4司와 同文學校를 총괄하여 다스리고, 협판은 각司를 대표하는 책임자로서 독판의 직무를 보좌하기도 하였다. 주사는 가장 말단 실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독단적으로 수행할 수는 없고, 참의나 협판의 자문과 독판의 비준이 있어야만 가능하였다. 전미란, 1989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關한 研究」, 『梨大史苑』 제24·25권 合輯, III장 참조.

인 기사를 다수 낸 이유도 여기에 있다고 생각된다.

당시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협판이었던 김윤식을 위시한 조선의 개화지식인에게 청불전쟁은 나라 간의 분쟁을 넘어서 西勢의 창궐로 인하여 東洋 전체가 잠식되어가는 위기상황으로 인식되었다.<sup>65)</sup> 김윤식은 베트남 사건에 대하여 사해의 각 나라들이 모두 무비를 갖추고 서로 권유하는데, 유독 프랑스만 베트남에서 무력을 사용하는 것을 못마땅하게 여겼고 베트남이 중국의 屬藩인데 프랑스가 이유 없이 간섭한다고 비판한 바가 있다.<sup>66)</sup>

물론 그렇다고 이는 당시 『한성순보』가 추구하는 바가 중국 중심의 기준 질서의 유지였다는 의미는 아니다. 『한성순보』에서 중국도 프랑스도 아닌 월남의 입장 을 알 수 있게 해 주는 기사를 쉽게 찾아볼 수 있다.<sup>67)</sup> 이는 중국에 대해 호의적 이면서도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견지하려는 『한성순보』 발간자들의 입장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그 다음으로 주목할 점은 프랑스에 대한 비판적 인식이 프랑스와 다른 서양 나라 간의 외교 기사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이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프랑스 관련 기사는 시기의 변화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나타나는데, 1883년 12월까지는 프랑스가 청불전쟁 상황에서 유럽 내에서도 스페인, 영국 등 각국과 분쟁을 일으키는 기사가 수록되었을 뿐더러 1883년 12월 중순 이후에는 단순히 프랑스가 일으키

65) 국사편찬위원회 편, 1971 『從政年表 隱晴史 全』, 「隱晴史 上」, 126-127면. “余曰、曾聞泰西諸國、惟俄外不貪人土地、此說亦妄。○唐曰、大約各國、無不貪土地、如人無不貪銀錢。(중략)大約緬甸、亦將爲英國所奪。○余曰、西勢如此猖獗、蠶食東洋、爲之一嘆。○唐曰、儘然。”

66) 국사편찬위원회 편, 위의 책, 126면. “余曰、安南係是中國屬藩、法人何故管攝他事、現今四海各國、皆修武備、互相勸教、何獨於安南、禁辦軍火乎、既係中國屬藩、地又相近、恐煩廟堂之慮。”

67) 11호(1884.2.8), 「越南三宣副提督雄威大將軍劉永福致法蘭西水師提督孤拔書」, 16-18면; 8호(1884.1.8), 「越王被弑」, 17면, 등을 참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尤可笑者 爾邦輒以保護爲名 試思越南爲中國藩服 如欲保護 有中朝在 與法蘭西何干”(「越南三宣副提督雄威大將軍劉永福致法蘭西水師提督孤拔書」에서 발췌): “今越人已決意與法人爲難 不復守其和約 受其挾制 且聲言法國總督夏文 前與越廷所立之和約 實以威力迫脅 非出本心 當視爲廢紙”(「越王被弑」에서 발췌).

는 분쟁 보도를 넘어, 프랑스에 대항하는 전체 유럽의 정세, 특히 강력한 독일이 프랑스와 적대하여 전쟁을 일으키려는 분위기들이 보도되었다고 한다.<sup>68)</sup> 이러한 변화는 중국의 무력한 모습에 대한 강조라기보다는 중-프랑스 대결에서 중국이 지는 것을 걱정하는 『한성순보』 속마음의 반영이며, 『한성순보』가 프랑스에 대해 가진 반감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이는 구체적인 기사 내용을 보면 더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예컨대 9호(1884.1.18) 「德法不相容」에서 일본의 『日日新聞』을 전재하면서 프랑스는 독일과 스페인 등 유럽 나라와 관계가 좋지 않아 서로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sup>69)</sup> 일본 『日日新聞』을 전재하는 것은 『한성순보』가 객관적으로 파악하려는 보도 태도의 반영이라고 생각되며 프랑스에 음모 등 부정적인 표현을 쓰는 반면 프랑스와 숙적이던 독일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서술하고, 특히 프랑스가 유럽에서 적이 많고 사면초가에 있다는 점을 들춰 서술하는 것을 보면 청불전쟁에서 중국이 이기고 프랑스가 패배했으면 하는 『한성순보』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했는지를 알 수 있다.

아울러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고 중국이 청불전쟁에서 이겼으면 하는 이러한 바람은 중국 군비 실력과 중국의 청불전쟁 대비 관련 기사에도 잘 나타난다. 15호(1884.3.19)의 「軍機戰艦不可自恃說」에서도 지적한 바와 같이 『한성순보』에서는 “중국의 軍機가 엄히 갖추어졌고 선박도 정밀해서 외적을 막기에 충분하고 강적을 위압할 수 있다”거나, “중국이 사들인 총포로 프랑스와 맞설 수 있으며”,<sup>70)</sup> “중국의 근래 군병은 훈련이 잘 되어 군사들이 모두 정예하여 부대마다 막강하므로 옛 날과는 비교가 안 될 만큼 크게 달라졌고, 또 사용하는 무기도 모두 상급에 속한다”는<sup>71)</sup> 내용의 기사가 많이 게재되었다.<sup>72)</sup> 이는 청과 프랑스의 대결에서 청이 이

68) 한보람, 앞의 논문, 135면.

69) 9호(1884.1.18), 「德法不相容」, 7-8면. “德國君臣正不以一勝而生驕也 且恐以一勝而速禍也 乃與意大利及奧斯馬加兩國結心腹之契 爲指臂之聯 (中略) 故法人雖欲陰謀報復而有所不能”

70) 15호(1884.3.19), 「軍機戰艦不可自恃說」, 8면. “中國之軍械嚴備 舟艦精良 足以禦外侮而威強敵”: “中國購辦之鎗炮兵船 不難與法人相頽頏”

71) 6호(1883.12.20), 「中國兵備」, 7면. “中國邇來 軍兵操演得法 有兵皆精 無旅不勁 大非昔日

겼으면 하고, 향후 중국이 강대해지기를 바라는 『한성순보』 속마음의 반영이라 생각된다.<sup>73)</sup>

나아가 중국에 대한 호의적이고 친화적 인식은 청불전쟁에서 중국 군대의 임전 태세에 대한 보도에도 잘 나타난다. 『한성순보』에서는 중국군인과 군대에 대해서 칭찬을 아끼지 않았으며 깊은 호감과 신뢰감을 드러냈다. 예컨대 4호(1883.11.30)의 「詳述黑旗戰捷事」란 글에서 자신의 몸을 돌보지 않으면서 “一當十의 기세”로 프랑스군과 용맹하게 맞서는 중국 군인의 모습을 자세하게 보도하였으며<sup>74)</sup> 17호(1884.4.6)에서 외국신문이 중국 군대를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것에 대해 “중국 군대를 지나치게 헐뜯는 언사”라고, 믿을 수 없다고 비판을 가하며 중국 군대에 대한 신뢰감을 드러내기도 하였다.<sup>75)</sup>

이러한 칭찬과 믿음은 심지어 프랑스의 공격으로 福州 함대가 괴멸되는 상황(1884년 8월 23일)에 이르렀는데도 멈추지 않았다. 『한성순보』는 큰 타격을 받았는데도 앞을 다투어 적을 무찌르고 용기를 뽐내 죽기로 싸우는 중국 군사<sup>76)</sup>와 죽

之比 且所用之鎗砲 盡屬上等”

- 72) 4호(1883.11.30), 「中國兵船告成」, 10면; 4호(1883.11.30), 「中國招商局新船下水」, 10-11면; 4호(1883.11.30), 「中國砲艦將來」, 11면; 6호(1883.12.20), 「軍火來華」, 7-8면; 7호(1883.12.29), 「砲彈足用」, 18면; 8호(1884.1.8), 「寧郡設防」, 14면; 8호(1884.1.8), 「西人論中國兵備」, 19면; 9호(1884.1.18), 「中國兵勢」, 13-14면; 18호(1884.4.16), 「巨砲運津」, 7면; 18호(1884.4.16.), 「兵船將來」, 7면 등을 참조.
- 73) 『한성순보』의 이러한 생각은 다른 곳에서도 쉽게 찾아볼 수 있다. 예컨대 16호(1884.3.27.)의 「越南要電」에서 청군이 폐배하고 프랑스군이 박닌(北寧)을 점령한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한성순보』는 박닌(北寧)전투의 폐배를 두고서 한 번의 전투로 판국을 확정지을 수는 없다고 강조하였고, 35호(1884.9.29.)의 「防俄助法論」에서 러시아가 프랑스를 도운 것을 대비해야 한다고 역설하였다. 중국에 대한 『한성순보』의 바람이 얼마나 간절하고, 그 보도 태도가 얼마나 호의적인지를 엿보게 해 주는 구절이다.
- 74) 4호(1883.11.30), 「詳述黑旗戰捷事」, 8면. “右營營弁韓伯銘見敵逼近 振臂一呼 驟啓營門 率敢死士從鎗砲林中奮勇殺出 無不一以當十 武列營見之 氣愈壯 戰愈勇 法軍血肉空飛 肝腦枕藉”
- 75) 17호(1884.4.6), 「議論可異」, 7면. “字林西字報登有一論 論中法情形 其後幅言 (中略) 該華兵俱係毫無紀律 與亂黨無異 其統兵者亦位卑而權輕 故一遇法人 卽行逃遁 (中略) 云云 該報所論如此 誠不知其何所見而云然 (中略) 其謂華兵爲與亂黨無異 直是痛詆華兵 (中略) 此等議論 想法人見之 必有大爲稱快者已 噫”

음을 앞두고도 의리를 지키려는 중국 군사,<sup>77)</sup> 그리고 힘을 합쳐 상부상조하며 프랑스와의 전쟁을 대비하는 중국 국민의 모습<sup>78)</sup>에 대해 보도했다.

#### (2) 중국과 조선, 일본 : 漢城旬報 사건

『한성순보』는 중국과 중국인, 그리고 중-프랑스 관계 관련 기사에서 모두 중국에 대해 호의적이고 친화적인 입장을 드러내고 있다. 『한성순보』가 서양과 중국의 관계에서는 중국에 대한 호의적 입장을 중심으로 했다고 분석된다. 그런데 동아시아와 중국의 관계에서는 객관적인 보도 태도를 중심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한성순보』를 개괄적으로 분석한 기준의 많은 연구에서는 이 신문이 중국에 대해 비판적인 반면 일본에 대해 호의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인식한다. 하지만 『한성순보』를 시간대를 통틀어 살펴보면 『한성순보』의 논조가 중국을 경시하고 일본인에 대해서는 해명의 언사를 많이 신는다는 상해 『申報』의 전술 기사가 『한성순보』 전반에 대한 평가라기보다는 『한성순보』에 대한 선입견에서 나온 것이며, 당시 『申報』 기자가 “한성순보 사건”의 영향으로 형성하게 된 『한성순보』에 대한 일시적인 인상을 기사화한 것이라고 사료된다.

소위 “한성순보 사건”이란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1884년 1월 30일(음력 1884년 1월 3일) 『한성순보』가 10호에서 「華兵犯罪」, 그리고 1884년 2월 8일에(음력 1884년 1월 11일) 11호에서 「華兵懲辦」이란 기사를 게재하였는데 이 두 기사에 대해 중국의 總辦商務委員 陳樹棠이 1884년 4월 13일(음력 1884년 3월 18일) 『한성순보』의 주관 부서인 博文局과 統理衙門 및 軍國衙門에 照會를 보내 사실상 官報의 성격이 강한 『한성순보』가 무책임하게 풍문을 그대로 따라 보도한 잘못을 지적하는 한편 상기 기사에서 범인을 ‘華兵’ 즉 중국 병사로 단정했는데, 이에 대해 의문을

76) 35호(1884.9.29), 「閩戰續述」, 8면; 33호(1884.9.10), 「再述福戰」, 6-7면. “是役也 華兵雖大吃虧 而衛鋒陷陣 奔勇敢死 亦未始不足以寒法人之胆也”; “揚武船主膽識兼優 竟移至法鐵艦旁 逼近攻擊 皆誓與船俱燼 嘴呼 偉哉”

77) 33호(1884.9.10), 「閩中西電」, 9-10면. “英國小輪船見之 卽拋索施救 誣兩華人義不接索 旋 卽沈下”

78) 34호(1884.9.19), 「守望相助」, 6면; 29호(1884.8.1), 「義民團練」, 11면.

제기하며 그 증거 제시를 요구하면서 항의한 바가 있다. 이것이 바로 이른바 “한성순보 사건”이다.

물론 陳樹棠은 조선 당국에 보내는 외교문서에서 교묘한 ‘조작’을 통해 이 모든 외교적 조치가 北洋大臣 李鴻章의 강력한 의지의 소산인 것처럼 보이게 함으로써 최대한의 외교적 압력을 가하는 효과를 누리고자 하였다. 결국<sup>79)</sup> 조선 측은 사실상 살해범이 청병이 아니라 중국인을 가장한 조선인일 가능성을 강하게 암시하는 고시를 漢城의 각처에 게시하고, 또 『한성순보』에도 전재하는 ‘양보’가 불가피했으며, 기사 작성에 관여한 일본의 井上角五郎은 책임을 지고 스스로 물러나 귀국하는 선에서 당시 조청 양국 관계를 긴장시켰던 한성순보 필화사건은 일단락을 짓게 되었다.<sup>80)</sup>

이 사건으로 인해 『한성순보』가 중국에 우호적이지 않다는 인상을 많이 주게 되었지만<sup>81)</sup> 사실은 상해 『申報』에서 보도된 전술 기사도 바로 해당 사건의 일시적인 영향으로 작성되었을 것이고,<sup>82)</sup> 이는 사실과 다른 점이 있었을 것으로<sup>83)</sup> 사료

79) 물론 조선정부는 이 사건에 대해 처음부터 중국 측에 사죄하는 태도이었다. 鄭晉錫, 앞의 논문, 134면.

80) 권인용, 2013 「1884년 “崔藥局命案”의 解體와 再編 -田保橋潔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총』 Vol. 80, 316면.

81) 심지어 당시 陳樹棠이 袁世凱에게 보낸 密函에서 『한성순보』가 중국인을 모욕하려는 심사가 있어서 중국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관점을 펴려한 바도 있다. 『淸季駐韓使館檔案』,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2)」, 「命案卷(2)」(01-41-012-11), 陳樹棠 訴訟 11, 12-14면(권인용, 2014 「1884년 ‘최약국명안’(崔藥局命案)의 재구성」, 『아세아연구』 제 57권 1호, 82면에서 재인용). “且該旬報實有心辱薄華人, 明目張膽, 播傳天下, 不留中國體面”

82) 해당 사건의 일시적인 영향이라고 판단하게 된 것은 상기 『申報』 기사가 보도된 것이 1884년 4월 5일(음력 1884년 3월 10일)인데 이쯤이면 “한성순보 사건”이 한창 진행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다음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첫째, 당시 음력 1884년 1월 25일 陳樹棠이 북양대신 李鴻章에게稟文을 올려 袁世凱와의 협력하에 전면 재조사를 진행할 필요성을 역설했고, 음력 3월 13일에 李鴻章의 비문을 받은 후 음력 3월 18일에 조선의 3개 기관에 정식으로 조회를 보내었다(권인용, 위의 논문, 81-82면). 둘째, 『한성순보』 제10호와 제11호에 수록된 「華兵犯罪」와 「華兵懲辦」 두 기사에 대해 당시의 사회 상황은 다음과 같았다. “모든 중국인들이 이 관보가 증거도 없으면서 억지로 날조하니 실로 (중국을) 모욕하려는 의도가 있다고 하면서 중론이 분분하였고, 조선인들도 그 관보

된다. 왜냐하면 전술한 바와 같이 『한성순보』는 중국에 대해 부정적이거나 비판만 일삼은 게 아니고 오히려 중국을 인정하고 염려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더구나 당시 중국은 조선에 군대를 주둔하고 있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 보도 이외에 반청적이거나 중국의 종주권에 저항하는 기사는 현실적으로도 취급할 수 없었을 것이다.

물론 陳樹棠이 袁世凱에게 보내는 密啓에서도 崔藥局命案이<sup>84)</sup>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으로 보는 관점을 견지하는 것과 陳樹棠과 袁世凱 공동명의로 李鴻章에게 이 안건에 관한 최종 보고서 격인 稟文 속에서까지 범인이 중국 군사가 아니라고 역설하는 것,<sup>85)</sup> 그리고 상해 『申報』의 관련 보도<sup>86)</sup> 등 여러 상황을 상기하면 崔藥

가 불공정하다고 말하는 자가 많았습니다.” 『清季駐韓使館檔案』,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1)」, 「命案卷(1)」(01-41-012-10), 陳樹棠 訴訟 10, 5-6면(권인용, 위의 논문, 90면에서 재인용). “旬報第十號, 第十一號, 內刊列‘華兵犯罪, 華兵懲辦’兩條, 言之確鑿, 凡屬華人, 無不謂該官報并無憑據, 平空結撰, 實係有心誣辱, 衆論譁然, 卽土人亦多有謂該官報不公者”

- 83) 『申報』의 보도가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수도 있다는 점은 동시대의 『한성순보』에 의해 서도 보도된 바 있다. 『한성순보』 23호(1884.6.2) 2면 “國內私報”란에 게재된 「錄申報一則」을 보면 『한성순보』가 『申報』 중 조선에 관한 소식을 전했는데, 그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을 지적하면서 “申報係是傳聞 或有失實(신보 그 자체가 傳聞에 의하여 기록된 것이기에 혹 사실과 다른 점이 있을 것이다)”라고 보도한 바 있다.
- 84) 崔藥局命案이란 『한성순보』 제10호에 수록된 「華兵犯罪」란 기사가 보도한 崔宅英 소유의 藥局에서 일어난 살인사건을 가리킨다. “한성순보 사건”的 직접적 계기가 바로 이 命案이었다.
- 85) 『清季駐韓使館檔案』,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2)」, 「命案卷(2)」(01-41-012-11), 陳樹棠 訴訟 11, 100면, 107-108면(권인용, 2014 「1884년 ‘최약국명안’(崔藥局命案)의 재구성」, 『아세아연구』 통권 155호, 100면, 76-77면에서 재인용). “再密啓者, 日昨風聞, 此案確是仇殺, 事起有因, 言之鑿鑿, 頃間又有略爲漠及者, 但總不肯明言, 緣此間民人怕官, 甚於雷霆, 不敢出首證明其事”; “或登時氣忿, 頃起殺機, 何以既熗傷其父, 又熗斃其子, 施熗之後, 崔姓父子, 皆已仆地, 怒可息矣, 何又連刃數傷, 有意致死”
- 86) 상해 『申報』에서 음력 1884년 2월 1일 「朝鮮盜案」란 제목으로 崔藥局命案이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고 보도한 바도 있다. 『申報』 제3903호(1884.2.27), 「朝鮮盜案」, 1-2면. “朝鮮有東別營在土官東 其中哨長鄭某 入直宿衛 盜其國王冬轎孤皮圍七付 存於其友崔姓家 崔亦土衛將 父子二人在南大街廣通橋東開設藥室 細閱此皮 非外間所有 因詣官百告 國王大怒 令捕捉中哨長鄭某 乃鄭某先聞此信 於去臘二十三日 逃遁無蹤 該國王姻恤其無知 姑赦其罪 而鄭某之憾崔姓 固未嘗稍釋於懷也 當於正月初二日 以二百八十兩東錢 扱三人子 以洋銃

局命案의 범인이 중국 병사가 아니었을 가능성은 매우 크다고 본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당시 『한성순보』에서 해당 기사 보도 당시에는 범인이 중국 병사라고 믿었기 때문에 그렇게 보도했을 뿐이라는 것이다.<sup>87)</sup> 즉 『한성순보』에서는 그들 주관의 사실에 입각한 보도를 했던 것이다. 당시 조선주재 청군의 군기로 보아 범인이 華兵일 가능성도 많은 점을<sup>88)</sup> 생각하면 『한성순보』의 전술 보도가 중국의 체면을 고려하지 않고 있었다고 할 수는 없고 오히려 사실 보도와 함께 매우 신중한 태도로 중국군에 대해 배려한 기사라 할 수 있다.<sup>89)</sup> 마찬가지로 11호의 「華兵懲辦」도 중국군을 비방한 내용은 없고 생각하기에 따라서 중국군의 조치를 칭찬한 것으로도 볼 수 있다.<sup>90)</sup>

---

並東洋刀一柄 穿中國黑馬褂 首戴黑申 勾通該藥室夥伴安姓 於二更後 叩門入內 聲稱買清心丸 見其父子二人及其夥伴二人同坐 因放銃殺其父子 並將其子斫數刀而去 其子當即斃命 次日傳說紛紛 都疑中國人所戕 其政府亦行文於吳筱帥並通商委員陳芝南 觀察兩處 懸金二千金 捉拿兇手 並查訪各處 中國人之散閒在外情跡可疑者 一概捉拿 凡有清心丸者多被捉去 經營務處袁司馬再三研訊 毫無口供 概予釋放而案終未破”

- 87) 당시 박문국 직원 이음진(李蔭鎮)은 음력 1884년 5월 17일 조청 양국 공동의 회심에서 이 사건에 대하여 거리에서 불특정 다수가 하는 말을 듣고 기사화했을 뿐이라고 공술한 바가 있다. 『淸季駐韓使館檔案』,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2)」, 「命案卷(2)」(01-41-012-11), 陳樹棠 訴訟 11, 111-113면(권인용, 2014 「1884년 '최약국명안'(崔藥局命案)의 재구성」, 『아세아연구』 제57권 1호, 98-99면에서 재인용). “李蔭鎮供, 年五十四歲, 在博文局當書辦藥室一案, 街上亂說甚多, 記不得爲誰所說, 旬報初刊之時, 不知規矩, 聞言即寫, 實在毫不知道, 皆是聽街上浮言, 所供是實.”
- 88) 당시 清兵의 군기 문란은 근거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던 듯하다. 상기 상해 『申報』의 「朝鮮盜案」 보도 중 “次日傳說紛紛 都疑中國人所戕”이라는 기록은 역으로 清兵의 범죄 행위가 당시 漢城의 시민들에게 있을 법한 일로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질 정도였음을 의미할 것이다. 『申報』 제3903호(1884.2.27), 「朝鮮盜案」, 1-2면.
- 89) 「華兵犯罪」에서 崔藥局命案 사건을 보도한 후 날이 밝자마자 중국 병영에서 다수의 인원이 파견되어 현장을 직접 조사했고, 각 軍陣에서 현상금을 내걸고 범인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清軍의 엄정한 군율 속에 일어난 의외의 사건이지만 전반적으로 清軍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기사를 종결하였다. 10호(1884.1.30), 「華兵犯罪」, 3면. “天明自中陣飛騎絡繹 親審形止 又自各陣當日大加查覈 四發譏探 (中略) 諸陣懸賞購捕 行當得獲不日 將伸法矣 中國兵丁 (中略) 殺威已久 紀律申明 而有此意外作變 幸賴諸陣駕馭有法 防閑素嚴 城郊晏若 軍民相安矣”

당시 「華兵犯罪」 기사 작성에 주도적인 역할 수행을 자부했던 일본인 井上角五郎이 그의 회고록인 『漢城酒殘夢』<sup>91)</sup>에서 자기가 崔藥局命案 사건 이후 중국이 취하는 무성의한 대응을 비난하자는 취지에서 해당 사건을 기사화하였다고<sup>92)</sup> 적었지만 이는 井上이 자기를 과시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기술로 생각된다. 井上이 회고록에서 기록한 내용과 10호 「華兵犯罪」 기사의 내용과는 상당한 괴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sup>93)</sup> 많은 선학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漢城酒殘夢』의 기술에 井상의 자기 과시와 과장된 부분이 적지 않았다.<sup>94)</sup> 다시 말해 井상이 중국을 모욕하고자 하는 심사가 있어 해당 사건을 기사화하려는 것이 사실이었을 터이지만 井상은 그럴 만한 위치에 없었기 때문에<sup>95)</sup> 지면 제작 태도만 보면 해당 기사가 사실 보도로밖에 안

90) 11호(1884.2.8), 「華兵懲辦」, 3면. “日前自華陣譏捕殺人犯罪之華兵 得三名 斬首 懸之孝經 橋頭 紀律肅然 軍伍知戢矣”

91) 일명 『漢城之殘夢』이라고도 함.

92)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1984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政治編7』, 「漢城酒殘夢」, 235-236면.

93) 예컨대 井上角五郎이 그의 회고록에서 사건 직후 조선 정부는 진상조사를 해달라고 중국 군에 조회를 보냈는데 이에 대해 중국 측은 범인을 수색하기는커녕 중국군인 가운데 그런 범인이 있을 수 없으며 조선인 또는 타국인이 중국 군인으로 가장하고 저지른 행위라고 오만하게 주장하며 회답했기 때문에 井상이 “즉시 한성순보 제10호에 그 사건을 게재 했을 뿐만 아니라 청국 군인 가운데 무뢰한의 무리가 적지 않다는 점, 또한 그들의 행동은 살벌하고 거칠며 난폭하다는 점, 그리고 이번 사건이 청국 군인에 의하여 자행되었다는 것을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는 점을 기사화했다”고 적었는데 하지만 정작 기사 내용은 이와 달랐다. 전술한 바와 같이 「華兵犯罪」에서 崔藥局命案 사건을 보도한 후 중국 병영에서 현장을 직접 조사했고, 각 軍陣에서 현상금을 내걸고 범인을 체포하려 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하는 한편 清軍의 엄정한 군율 속에 일어난 의외의 사건이지만 전반적으로 清軍이 잘 통제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본 기사를 종결하였다.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위의 책, 235-236면; 10호(1884.1.30), 「華兵犯罪」, 3면.

94) 권인용, 2013 「1884년 「崔藥局命案」의 解體와 再編」, 『사총』 Vol. 80, 292면; 井上角五郎 (한상일 역·해설), 1993 『서울에 남겨둔 꿈』, 단국대학교출판부, 5면; 徐昌植, 앞의 논문, 119면; 鄭晉錫, 앞의 논문, 134면.

95) 井上角五郎은 그의 회고록에서 자기가 박문국 주임으로서 마치 신문발간의 주역이었던 것처럼 묘사하고 있지만(韓國學文獻研究所 편, 앞의 책, 229면) 박문국의 人的構成을 알 수 있는 한국 측 자료에는 井上角五郎이 主事나 主任으로 있었다는 기록은 보이지 않는다. 『한성순보』가 창간된 뒤 두 달 후에 나온 7호에는 박문국의 소속기관인 통리교섭통상사무아문의 人事명단이 실려 있는데 井上角五郎에 대해서는 人事記事 맨 뒤에 아무런

보이는 것이다.

陳樹棠이 항의한 것은 해당 사건이 원한관계에 의한 살인사건이라는 관점을 버릴 수 없었던 것도 있지만, 군의 보안 문제와 조청관계, 민심의 동요를 우려한 나머지 보도되지 않기를 희망했는데도 기사가 실린 데 대한 불만 때문이었을 것이고, 원래 조선과 한나라처럼 지내왔던 중국에 『한성순보』가 취한 “공평무사”한 보도 태도 및 예전과 비교하면 상당히 소원해진 조청관계에 대한 섭섭함의 발로라고 생각된다.

또한 『한성순보』는 발간의 동기에서부터 일본의 자극을 받은 바가 컸고 준비과정과 기계구매 등 실제 제작에도 일본인이 직접 참여하고 있었기 때문에 중국 측은 상대적으로 소원함을 느꼈을 것이다. 井上角五郎이 『漢城迺殘夢』에서 『한성순보』가 세상에 나오자 물의가 일고 소연해졌는데 중국인의 비난이 심하였다고 적었는데<sup>96)</sup> 중국이 『한성순보』에 대해 못마땅해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소원함과 섭섭함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물론 『한성순보』에 대한 중국의 태도가 井上의 기술만큼은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井상의 기술만큼 중국 측이 『한성순보』를 못마땅해 하였다면 갑신정변 후 조선의 일본에 대한 감정 및 당시 청·일의 조선 내에서의 세력 판도를 생각하면 『한성순보』가 1886년 1월 25일 『漢城週報』로 이어져 발간되지 못했을 것이다.

마찬가지로 1884년 12월 갑신정변이 실패로 돌아간 뒤, 박문국 사옥과 활자·인쇄시설 등이 모두 시위군중에 의해 습격 당해 불에 타버린 사건도 『한성순보』의 논조가 반수구적이고 친일반청적이었기 때문이 아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성순보』 박문국 사옥이 습격 당한 이유는 일본인 井上角五郎 때문이었을 것이다. 알

---

직함도 없이 “博文局 芎洞 日本人 井上角五郎”으로만 나와 있다. 이 인사명단에 실린 다른 외국인은 물론 심지어 일본인 유학생에게까지 어학생도라고 직함을 밝히고 있는데 井上角五郎의 직함은 없다. 이 명단은 『한성순보』 31호에도 실려 있는데 『한성순보』 편집진의 명단이나 직함에는 변동이 없다. 漢城府新聞局章程에 “번역원 2인을 두되 1인은 내국인, 1인은 외국으로 한다”는 규정이 있는데 井上角五郎은 외국인 번역원 자격으로 고용되어 번역업무에 종사한 것 같다. 徐昌植, 앞의 논문, 119면을 참조.

96)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위의 책, 229면.

다시피 『한성순보』 발행의 주체인 박문국이 井上角五郎의 집인 莺洞에 있고, 井上角五郎이 1884년 8월 서울에 다시 와 있었다.<sup>97)</sup> 일본인 井上角五郎이 당시 조선에서 세인들에게 주는 친일적 이미지 때문에 『한성순보』가 억울하게 분풀이의 대상이 되었을 뿐이라고 생각된다.<sup>98)</sup>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중국에 대한 『한성순보』의 이런 부정적 기사도 대부분 따져보면 그 출발점이 동아시아의 종주국으로서 중국의 미래가 희망적이길 기대하는 바람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22호(1884.5.25)의 「論製造不可畏難說」이나 15호(1884.3.19)의 「軍機戰艦不可自恃說」 등에 잘 나타난다. 『한성순보』에 게재된 이런 기사는 편집자 자신도 지적한 바와 같이 “좋은 약은 입에 쓰지만 병에 좋고, 충성스런 말은 귀에 거슬리지만 행실에 도움이 된다”는 바람에서인 것이다.<sup>99)</sup> 다시 말해, 『한성순보』가 세계의 대국으로 믿어왔던 중국이 서양 열강 앞에 힘없이 굴복하는 것을 보고 실망한 나머지 부정적인 기사를 게재했을 가능성 있다 하더라도 그 동기가 반청적이라고는 할 수 없다. 하물며 『한성순보』는 창간호의 「論洲洋」를 통해 조선을 중국의 朝貢國으로 명확히 표현하고<sup>100)</sup> 있었던 상

97) 韓國學文獻研究所 편, 위의 책, 229면, 237면, 250면, 251면. “支那兵が王宮に亂入したるときに、予は恰かも苧洞なる寓所に止まれり” “予の寓所も同夜暴民の爲め焼かれたりと聞けり”

98) 『한성순보』가 현재 36호까지만 남아있는 이유 중, 1884년 10월 9일자 제36호 발행 이후에 무슨 이유였는지 이미 신문 발행이 중단된 상태였는데, 갑신정변으로 박문국이 불타서 더 발행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을 것이라는 가설도 가능하다는 점을 상기하면 일본인 井上 때문에 『한성순보』가 억울하게 분풀이의 대상이 되었을 가능성이 더 크다고 생각된다.

99) 15호(1884.3.19), 「軍機戰艦不可自恃說」, 8-9면. “而此則所謂藥石成仇而飲鳩以覓醉者已竊願中朝之慎 毋出此也耳”

100) 1호(1883.10.31), 「論洲洋」, 18면. “此洲之內 中國爲最大 (중략) 朝鮮及暹羅 安南 緬甸 西藏等國 皆通其朝貢” 『한성순보』가 조선을 중국의 조공국으로 표시한 것은 당시로서는 별로 이상할 것이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동서양 속국의 개념 차이에 대해 당시 『한성순보』에서 명확한 인식을 가지고 있었다. 1호(1883.10.31), 「安南與法人議和」, 9-12면을 참조. 『한성순보』가 청국 황제의 말을 上諭라고 표시한 것도 이 때문이다. “蓋屬國之體統 中西自有不同 如中國之屬國 只有立國立君 受天朝之勅命 聽中國之節制 其余一切進退官僚交納以及商務軍務暨國中所有政務 中國皆不與聞 聽其自便 其有大悖乎 中朝則興師命討 明正其罪 苟無大悖逆 則皆任其自爲 中國絕不過而問焉 如泰西所謂屬國 直如漢魏

황에서는 더욱 그랬을 것이라고 사료된다.

그렇다면 과연 현재 일부 기존 연구에서 지적한 바와 같이 『한성순보』는 중국의 무력이 서양에 열세한 것을 목격하고도 중화 세계질서에 자발적으로 소속하고자 하였던 것인가? 이는 『한성순보』의 편집 체제만 봐도 알 수 있다. 『한성순보』는 중국의 연호를 이차적으로 배치하고 발행일을 조선개국 연호로 공식 표기한 바 있었다. 예컨대 창간호 1면에 『한성순보』 발행 일자를 표시하면서 조선개국연호는 눈에 잘 띄는 『한성순보』 제호 밑에 게재하고 ‘中國光緒九年’이라는 중국 연호는 눈에 잘 띠지 않는 좌상단의 본문밖에 표시해 놓고 있다.<sup>101)</sup> 뿐만 아니라 조선 국왕의 動靜을 보도하는 기사에서 “勅諭” “欽錄” 등의 어휘를 사용하였는데<sup>102)</sup> 이는 조선의 자주독립 의지의 발로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지적해야 할 것은 『한성순보』에서 “勅諭”이나 “欽錄” 등의 어휘를 창간호부터 36호까지 계속 사용하였고, 창간호에서 조선을 중국의 조공국으로 표기하였으며,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가 5호가 되어야 비로소 나타나는 반면<sup>103)</sup> 창간호부터 7호(1883.12.29)까지 중국에 대한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기사가

---

之藩王 不啻中國之行省 不但王位之廢立 皆大國爲之主持 卽其平日之錢糧稅項亦皆由大國 派官以監收”

101) 이에 대해 많은 선학들이 이미 지적한 바 있다. 徐昌植, 앞의 논문, 98면; 南時旭, 앞의 논문, 188면.

102) 1호(1883.10.31), 「勅諭恭錄」, 2-3면; 29호(1884.8.1), 「諭旨恭錄」: 36호(1884.10.9), 「大里 甌卜」 등을 참조. “勅諭”이나 “欽錄” 등의 어휘는 보통 왕이 아닌 황제에게만 쓰이게 되어 있었다.

103) 5호(1883.12.9)의 「日本史畧」 등을 참조. 5호 전에 일본 관련 기사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日本頃聞」(1호), 「日本陸軍」(1호), 「仁川港居留地日本商民租界公拍成冊」(3호), 「日本條約」(4호), 「修好條規」(4호), 「修好條規附錄」(4호), 「續約」(4호). 이 중 일본의 상황을 소개하는 기사가 1호(1883.10.31)의 「日本頃聞」과 「日本陸軍」뿐이었다. 「日本頃聞」에서 일본의 參議 伊藤博文이 유럽의 풍속 시찰을 마치고 귀국하였다는 소식, 일본 福島縣 사람 河野 등 6명이 반란을 꾀하다가 발각되어 처형당했다는 소식, 전 조선 주재 일본 공사 花房義質이 러시아 주재 공사로 전임되었다는 소식을, 「日本陸軍」에서는 일본에서 軍備에 소홀히 할 수 없음을 알고 한창 陸海軍 강화에 치중한다는 소식을 간단하게 기술하였다.

상대적으로 더 많았던 점을 상기하면 『한성순보』가 창간 초기에 친일적 성향을 띤 것이라고 할 수는 없다고 생각된다.

이러한 특성은 『한성순보』의 청·일 관계 관련 기사에 나타난 일본에 대한 태도를 통해서도 일관적으로 나타난다. 다시 말해 일본에 대한 『한성순보』의 호감도는 중국보다 그다지 높지 않음이 여러 기사를 통해 드러난다. 예컨대 26호(1884. 7.3)의 「治道論」에서 일본을 칭송하고 중국을 멸시하는, 서둘러 다스림을 구하여 신법을 시행하려는 자에 대해 識遠深謀한 인사가 아니라고 일갈하였다.<sup>104)</sup> 또한 1877년 일본의 대만점령에 대해 『한성순보』는 다음과 같이 냉소적 태도를 보였다.

“지난해 일본에서 流球의 難民 일을 구실로 삼아 군사를 일으켜 기회를 타고 토벌하고 어루만지며 ‘敎化 밖의 頑民을 이제부터 차차 仁義로 다스리며 전체의 臺灣을 얻어 다스릴 수 있으리라’ 하고 1년 넘게 애썼으나 끝내 확실한 효력을 보지 못하여 버리고 다스리지 아니하였으며, 겨우 북쪽 지방에 1府 1廳 3縣을 설치하였을 뿐이다.”<sup>105)</sup>

물론 『한성순보』에서 일본의 개화와 부국강병책에 긍정적인 기사도 상당히 게재하였다.<sup>106)</sup> 하지만 그렇다고 『한성순보』가 친일 성향을 띠거나 친일적인 논조를 뒀다고 할 수는 없다. 『한성순보』에서 일본의 대만점령, 流球의 병합에 대해 냉정한 반응을 보였을 뿐만 아니라<sup>107)</sup> 일본이 조선에서 부리는 행패에 대한 보도도 심

104) 26호(1884.7.3), 「治道論」, 12-15면. “今日者 去積習 格俗情 汲汲求治 以舉行新法者 皆稱 頌于日本而藐視我中邦 此豈識遠深謀之士哉”

105) 12호(1884.2.17), 「瓊防緊要說」, 13면. “曩年 日本以琉球難民之故 藉口與師 當事乘機剷撫 以爲化外頑民從此漸摩仁義 全台可得而理矣 乃辦之有年 終未見明効大驗 因仍棄而勿治 僅於北境 相度形勢 增設一府一廳三縣 而南路生番 依然獮狂舊俗”

106) 일례로 5호(1883.12.9)의 「日本史畧」, 6호(1883.12.20)의 「日本小傳」, 7호(1883.12.29)의 「日兵事情」, 「日本人改修築竈法」, 9호(1884.1.18)의 「中國造船廠」, 11호(1884.2.8)의 「製火油新法」, 「論中國戰船」, 13호(1884.2.27)의 「日本海軍再述」, 14호(1884.3.8)의 「述日本新聞」, 15호(1884.3.19)의 「論箕和形勢」와 「撮影局」, 24호(1884.6.13)의 「日本載筆」, 「日本國君勤政」, 26호(1884.7.3)의 「治道略論」(김옥균의 所作) 등을 들 수 있다.

107) 예컨대 34호(1884.9.19)의 「前王不忘」에서 폐위되어 境外로 쫓겨나, 환국할 기회가 막연함을 한탄하는 琉球國 前王의 근황을 동정, 감개 어려 소개한 바가 있으며(“棠歌芨舍徒畱剪拜之思 葛覽施邱不盡流離之感 王於返國之日 應亦緬懷鍾鼎蒿目河山 有不堪回首之故”

심찮게 찾아볼 수 있다.<sup>108)</sup> 심지어 일본에 대한 긍정적인 기사도 대부분이 8호(1884.1.8) 「桑台失守」 기사가 보도된 후인 1884년 초쯤에 집중되어 있고,<sup>109)</sup> 일본의 개화와 부국강병책을 소개하는 데에 그치고 있었을 뿐이다.<sup>110)</sup> 많은 선행 연구

矣” 12호(1884.2.17)의 「天津近事」에서 비록 중국 사람의 말을 빌어서 하는 것이지만 일본의 대만점령,琉球의 병합을 “侵我臺灣 夷我琉球”라고 기록하고 있다.

- 108) 예컨대 31호(1884.8.21)의 「慶尙道觀察使狀啓」에서 조선인 蘇守權이 일본인에게 억울하게 맞아 그 자리에서 죽었다는 소식을 전했으며 33호(1884.9.10)의 「議政府啓」에서 제주도민 생업에 대한 일본인의 침해 상황을 호소하기도 하였다.
- 109) 일본에 대해 호의적이고 긍정적인 기사는 주로 11호(1884.2.8), 13호(1884.2.27), 14호(1884.3.8), 15호(1884.3.19), 24호(1884.6.13)에 집중되어 있고 나머지 기간 대의 기사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이지도 부정적이지도 않은 일반적인 소개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물론 이러한 일반적인 소개도 서양의 제도나 형식을 일본의 형편에 맞게 변형하여 明治維新을 성공시켜 날로 반전해 가는 일본에 대한 관심과 호감, 그리고 이를 조선의 방식으로 모방하려는 『한성순보』의 의도의 반영이라고 생각된다. 예컨대 5호(1883.12.9)의 「釜山港電線」, 「日本公使歸國」, 「日本頃聞」, 「美使信函」, 6호(1883.12.20)의 「東萊府使狀啓」, 「仁川口租界約條追錄」, 「日本頃聞」, 7호(1883.12.29)의 「諭旨恭錄」, 「日本頃聞」, 「泰西法律」, 8호(1884.1.8)의 「印絲近情」, 9호(1884.1.18)의 「日本海軍」, 「日本鐵道」, 「日本造幣統計表」, 「日本軍艦周游地球」, 「日本開溝」, 「日本水產」, 「各國陸地電線表」, 「各國海底電線表」, 10호(1884.1.30)의 「歐米立憲政體」, 「日本更新」, 11호(1884.2.8)의 「歐米地方政治」, 「歐美徵兵法」, 12호(1884.2.17)의 「日本清輝艦來港」, 15호(1884.3.19)의 「日本館醫院」, 「泰西郵制」, 「出版權」, 「博覽會說」, 16호(1884.3.27)의 「伊國日盛」, 17호(1884.4.6)의 「日本醫生」, 「日本村田銃」, 「砲兵工廠」, 「鍛橋」, 「日本新艦」, 18호(1884.4.16)의 「製糖須勸」, 「日本人口古今一覽表」, 「日本國費」, 19호(1884.4.25)의 「日本近聞」, 「日本地租條例」, 24호(1884.6.13)의 「日艦命名」, 「借材異地」, 「日本兵艦得人」, 25호(1884.6.23)의 「閩華洋貿易總冊書後」, 「外交設館」, 「質物新章」, 「日本明治十七年歲出之部」, 26호(1884.7.3)의 「職工學校規則」, 「俄國誌略」, 28호(1884.7.22)의 「日本新例」, 「日本華族」, 「日本官員統計表」, 「日本有位者統計表」, 32호(1884.8.31)의 「泰西各國小學校」, 35호(1884.9.29)의 「歷覽英國鎳廠記略 繢前卷」, 「日本地租例」 등이다.
- 110) 그 사례 몇 가지를 열거하면 다음과 같다.
- 「日本史畧」(5호, 1883.12.9)에서 일본에 대한 칭찬은 “지금 天皇이 천하의 大勢를 일찍 깨달아 안으로는 여러 港口를 열어 무역을 통하고, 밖으로는 公使와 領事を 歐美 각국에 보내 널리 富強의 방책을 구하여 火車·汽船·電氣·郵便·鑛業에서부터 農桑·耕織까지 다 서양 것을 모방하고, 政制는 祖宗의 法과 세계 각국의 政俗을 참작하여 정했다. 본국의 機務에 대해서 歐美人 역시 크게 칭찬하고 감탄한다고 한다”에 그쳤다.
  - 「日本海軍再述」(13호, 1884.2.27)에서 일본의 군사 실력에 대해 “일본 해군을 歐美 각국

자들도 지적한 바와 같이, 일본에 대한 호의적인 기사 보도는 明治維新을 성공시킨 일본을 서구와 同列에 올려놓고 개화의 모델로 삼으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임이 드러난다.<sup>111)</sup> 이는 『한성순보』가 친일적이라기보다 객관적인 언론 매체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한성순보』의 편집 태도는 전술한 14호 (1884.3.8)의 「亞細亞洲總論」에도 나타난다. 「亞細亞洲總論」에서 『한성순보』는 일본인 金子彌兵衛의 論說을 인용한 것이라고 밝혔는데 그 내용을 보면 金子彌兵衛의 「亞細亞洲總論論說」인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알다시피 金子彌兵衛는 「亞細亞洲總論論說」에서 유럽인의 견해를 빌어 일본이 아시아의 영국이 될 것이라면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가 되겠다는 포부를 내비쳤는데 『한성순보』에서는 이 부분은 언급하지 않고 金子彌兵衛의 아시아가 협력해야 한다는 논설 부분까지만을 게재하였다.<sup>112)</sup> 『한성순보』의 이러

에 견주어 본다면 2, 3개국을 제외하고는 능히 따를 자 적다”고 크게 칭찬했지만 『日本近信』에서 전재한 것이라고 밝혀 자화자찬의 가능성도 있음을 암시하고 있다.

- 「述日本新聞」(14호, 1884.3.8)에서는 “舊史를 상고해보니 經典, 子集, 道經, 佛書로 시작하여 紡織, 修造, 陶冶 등 기술에 이르기까지 모두 우리나라에서 일본에 전파되었다”고 소개한 다음, “현재 日皇이 조정에 임한 후로 오로지 教化에 專心하여, 모든 格致學(물리, 화학 등 서양 신지식 학문)의 학문과 治國의 법도에 있어, 서양 사람들이 ‘동양에서 제일가는 나라’라고 칭찬하고 있으니”, 나라를 잘 다스리기 위해 일본의 훌륭한 점을 본받을 필요도 있다고 조심스럽게 주장하고 있다.
- 「論箕和形勢」(15호, 1884.3.19, 金玉均의 所作으로 보임)에서 유럽인의 견해를 빌어 일본은 전략적 위치로 보아 亞洲의 으뜸을 자랑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時宜를 아는 사람으면 당연히 거기에도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고 일본의 중요성을 호소하고 있다.

111) 徐昌植, 앞의 논문, 125면; 김병기, 앞의 논문, 65면.

112) 金子彌兵衛의 「亞細亞洲總論論說」의 원문은 다음과 같다. “(前略)我邦之人所爲、不止于邦內、猶進而與全洲共有所爲、以挽回亞洲數千年之頽廢、而爭雄于歐洲之富強、且時不可失、事之成敗、在時之得失、昔者英吉利富強文明、先于歐洲諸邦、雖國僻在海島、爲大洲之盟主者、亘數百年、諸邦皆仰之如山斗、其權勢威望至今不衰（中略）今我邦之于亞細亞大洲、勢類此焉、歐人嘗有言曰東方應有一英國、謂我邦之將雄長于全洲也、嗚呼我邦有此名而無其實、將何以答天下之人、勉哉、邦人之責不輕也、全州諸邦亦應振刷精神、盡除舊弊、煥發新猷、而共心合力以成大有爲之勢焉、是則余之厚望也夫”。(黑木彬文·鱣澤彰夫解說, 1993(復刻版)『興亞會報告·亞細亞協會報告(第1卷)』, 『興亞會報告(第二集)』(明治13年4月1日刊行), 收錄資料篇 11면. 『한성순보』에서 웃글 중 밑줄 친 부분은 언급하지 않

한 보도 태도를 보면 그 논조가 친일적이라기보다 그 관심이 다만 동양문명의 진로 탐색과 아시아 협력에 집중되어 있었다고 하겠다.

『한성순보』에 비친 중국과 일본을 비교하자면 조선에게 중국이 “문자와 문화가 같아 聘幣(공경하는 뜻으로 보내는 예물)와 교역이 왕래하고 있는” 친숙한 존재지만 일본은 다른 서양 열강과 같이 “지금까지 알지 못해왔던” 외국일 뿐이며, 조선에서 그나마 일본을 호의적으로 보는 이유는 “근년 이래 일본은 화호에 한결같이 마음을 쓰고” 있고,<sup>113)</sup> 당시 일본의 조선에 대한 본격적인 진출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아 일본이 “역시 동맹의 대열에 불과하고 이로부터 감히 망령된 다른 생각을 내지 못한다”고<sup>114)</sup> 생각되었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 및 “한성순보 사건” 중 사실 보도를 견지한 『한성순보』의 보도태도 등을 고려하면 전체적으로 『한성순보』가 중국에 대해서 호의적인 바탕을 가지고 그 정보의 전달에 있어서는 객관적이며 주체적 태도를 지키려 하는 것이 분명하다고 하겠다.

---

고 생략하였다(14호(1884.3.8), 「亞細亞洲總論」, 12면).

113) 33호(1884.9.10), 「條約各國疆界人口政治事務輸出入等一覽表」, 2면. “我國與中國疆土毗連同文共軌 聘幣交易往來熙攘 外他各國一概不聞 式至于今矣 比年以來 日本一意和好 舟車相望” 그리고 여기서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일부 선학들이 『한성순보』가 이 기사에서 조선과 조약을 체결한 日, 美, 英, 獨, 伊, 露 등 6국에 대해서는 모두 자세히 보도하면서 같은 조약국이며 종주국인 중국에 대해서는 아예 거론조차 하지 않고 있는데 이것만 보아도 중국에 대한 『한성순보』의 자주독립 의지를 엿볼 수 있다고 주장하는데(徐昌植, 앞의 논문, 101면) 이에 대해 필자의 생각은 좀 다르다. 당시 조선에게 중국이 다른 외국과 同列에 올려놓고 특별히 소개하지 않아도 될 만큼 친숙하고 특별한 나라이기 때문에 이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한성순보』에서 중국을 다른 외국과 同列에 올려놓고 소개했으면 중국은 더 많은 불만을 표출했을 것으로 사료된다. “한성순보 사건”이 터진 후 總辦朝鮮商務 陳樹棠이 조선 측에 보낸 조회에서 조선과 중국은 원래 한나라와 같은 관계였으니 다른 나라의 경우와는 다르다고 두 나라의 특수한 관계를 강조한 바 있다. 이는 역으로 당시 중국도 조선도 조청관계의 특별함을 인정하고 있었다는 의미로 생각된다. 高麗大學校 亞細亞問題研究所 舊韓國外交文書編纂委員會 編, 1970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清案(1)), 64-65면을 참조. “中國朝鮮, 向來視同一家, 未便援各與國疏遠之例”

114) 25호(1884.6.23), 「遼羅不靖」, 15면. “而日本亦不過在同盟之列 從此不敢妄生他念”

#### 4. 요약 및 결론

본 연구는 『한성순보』의 동시대 중국에 대한 인식을 고찰하며, 특히 중국 관련 보도 기사의 구성, 중국에 대한 인식 및 보도 입장 등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우선 『한성순보』는 당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시아 질서 및 국제사회에서의 중국의 위상 변화에 대해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으며, 중국이 보여주는 모습에 다면적으로 접근하여 그 보도에 있어 정확하고 객관적인 눈을 가지려고 노력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방면에서 잘 드러난다.

첫째, 『한성순보』를 보면 청불전쟁과 관련된 보도 자료가 전체 외국 관련 기사 보도 자료의 48%에 달한다. 이러한 비율을 통해 당시 『한성순보』가 청불전쟁에 깊은 관심을 갖고 중국 청 정부와 프랑스의 대치 상황에 대해 면밀히 주시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둘째, 『한성순보』의 서양 관련 기사에 나타난 보도 성향이다. 당시 『한성순보』는 서양 열강 자체에 관심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고, 주로 당시 중국과 첨예하게 대치하고 있던 프랑스, 그리고 중국과 국경 분쟁을 계속하고 있던 러시아에 주목하고 있었다. 즉, 중국 중심의 호의적인 태도를 견지하며 새로운 세력으로 보이는 서양 세력들 속의 중국의 위상변화에 촉각을 곤두세웠던 것이다.

셋째, 『한성순보』에 인용된 매체를 보면 중국의 정기간행물이 압도적인 비율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일본으로부터 입수하는 정보는 1/9도 안 될 만큼 작은 비중이었다. 이러한 비율은 중국에 대한 관심의 크기 및 신뢰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내용이라고 본다.

넷째, 『한성순보』는 다각적인 매체를 이용하여 중국의 입장뿐만 아니라 중국과 대립되는 입장도 수록해 한쪽 방면으로 치우친 편향된 정보제공이 되지 않도록 했으며, 이를 통해 독자들이 객관적인 정보를 접할 수 있도록 노력했다. 이는 당시 발행주관 기관에 시무를 중시한 개화지식인의 정세인식의 발로이며, 이러한 보도

성향이야말로 『한성순보』가 근대적 자주 신문이라는 의의를 갖는데 당연성을 준다.

다음으로, 『한성순보』는 중국에 대한 친화적인 인식을 바탕으로 호의적인 보도 태도를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주로 다음과 같은 네 가지 측면에서 잘 나타난다.

첫째, 『한성순보』는 중국이 비록 서양 열강에 비해 낙후되어 있지만 미래 전망이 밝은 대국이라고 묘사하고 있다. 『한성순보』는 동아시아 문명에 대해서는 기대 어린 시각으로 바라보았지만, 서양 문명에 대해서는 완전히 인정하고 지지하는 입장은 아니었다. 즉, 『한성순보』는 서양의 세력 앞에서 동양 문명의 진로를 중국과 같은 입장에 서서 고민하고 대응 방안을 모색하려는 태도를 보인 것이다.

둘째, 『한성순보』는 중국인에 대해 비록 지금은 고난에 허덕이지만 언젠가는 충분히 부활할 수 있는 지혜롭고 미래가 밝은 집단으로 묘사했다. 또한 중국 국내 및 조선에서 근무하고 있는 중국 관리들과 병사들에 대해서도 찬사를 아끼지 않았다. 이러한 묘사는 물론 『한성순보』의 주관적인 보도라기보다는 기 보도된 중국의 보도내용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보여진 보도 성향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한성순보』가 기본적으로 중국에 대해 친화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기에 그 내용의 묘사 또한 일관적으로 중국에 대한 희망의 태도를 견지할 수 있었다고 본다.

셋째, 『한성순보』는 그 당시 중국과 대치 상황에 있었던 프랑스에 대해서는 비판적인 입장을 보였다. 프랑스에 대해서는 프랑스는 중국과 달리 ‘자기의 힘을 믿고 약한 자를 능욕(恃强凌弱)’하는 소인배라 표현하며 강렬한 아시아 유대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넷째, 『한성순보』는 중국에 대해서만 일본에 대해서만 객관적인 사실에 입각한 사실 보도에 중점을 두고자 노력했다. 전체적으로 보면 『한성순보』에 비친 중국이 조선에게 친숙한 존재지만 일본은 다른 서양 열강과 같이 “지금까지 알지 못해왔던” 외국일 뿐이었고, 더 많은 관심과 정보가 필요한 대상이었다. 즉, 친일반청적이라는 기존 일부 주장들이 있지만 오히려 『한성순보』 속에 나타난 일본과 중국에 대한 인식을 구분하자면 중국에 대한 호의적인 태도를 바탕으로 기사의 제공에 있어서는 객관성을 유지하고자 노력했다고 볼 수 있다.

결론적으로 『한성순보』가 중국에 대해 전반적으로 호의적인 바탕을 가지고 객관적이고 주체적 보도 태도를 지키려 했으며, 비판적이고 부정적인 면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이는 친일적이라기보다 당시 국제정세 속 약국이 된 중국에 대한 객관적 사실의 반영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보도기사의 편집 방향으로 미루어 보아 당시 일부의 비난과 같이 편파적인 편집 태도라고는 볼 수 없다고 하겠다. 이와 동시에 우리는 『한성순보』를 통해 당시 발간의 주체가 되는 조선의 개화지식인의 對 중국관, 對 세계관을 엿볼 수 있다.

논문투고일(2016. 4. 30), 심사일(2016. 5. 20), 게재확정일(2016. 6. 10)

## 참고문헌

### 1. 자료

- 『舊韓國外交文書』 제8권(= 清案(1))  
 『舊韓末日帝侵略史料叢書. 政治編7』, 「漢城迺殘夢」  
 『申報』  
 『從政年表 陰晴史 全』, 한국사료총서6  
 『清季駐韓使館檔案』, 「朝漢城藥局崔宅英命案辦理卷」(1) · (2)  
 『漢城旬報』  
 『興亞會報告 · 亞細亞協會報告(第1卷)』, 「興亞會報告 第二集」

### 2. 단행본 및 논문

- 권인용, 2013 「1884년 “崔藥局命案”의 解體와 再編 -田保橋潔의 연구에 대한 비판적 검토를 중심으로」, 『사총』 Vol. 80  
 \_\_\_\_\_, 2014 「1884년 ‘최약국명안’(崔藥局命案)의 재구성」, 『아세아연구』 제57권 1호  
 김병기, 2003 「개화기 논설에 비친 대외문제와 일본인식: 한성순보·주보를 중심으로」, 『개화기 한국과 세계의 상호 이해』(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소 편), 국학자료원  
 김용덕, 2000 「1880년대 조선 개화운동의 이념에 대한 검토: 한성순보·한성주보를 중심으로」, 『한일 공동연구총서』 Vol. 2000 No.3  
 남시욱, 1980 「漢城旬報와 朝鮮의 對外關係: 紙面에 나타난 記事와 報道態度를 중심으로」, 『신문연구』 여름 통권30호  
 문성규, 1990 「漢城旬報의 開化思想에 관한 研究: 内容分析을 中心으로」, 중앙대학교 박사학위논문  
 서창식, 1985 「漢城旬報의 性格에 관한 研究」, 대구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이광린, 1968 「漢城旬報와 漢城周報에 對한 一考察」, 『역사학보』38  
 이광재, 1983 「漢城旬報 性格 論爭과 그 意義」, 『신문과 방송』통권 151호  
 이수룡, 1988 「『漢城旬報』에 나타난 開化·富強論과 그 性格」, 『(孫寶基博士停年紀念)韓國史學論叢』, 知識產業社  
 이수향, 1998 「漢城旬報의 對外認識에 관한 研究」,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전미란, 1989 「統理交涉通商事務衙門에 關한 研究」, 『梨大史苑』 제24·25권 合輯  
정대철, 1984 「漢城旬報·周報의 開化方向에 關한 考察」, 『동아시아 문화연구』5  
정진석, 1983 「漢城旬報 周報에 關한 研究」, 『신문연구』 겨울 통권36호  
최정화, 1987 「漢城旬報에 나타난 文明 開化論의 성격」, 동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최서영, 1972 「韓國의 初期開化 運動과 新聞: 漢城旬報에 대한 研究」, 『신문연구』 봄  
통권18호  
최 준, 1969 「「漢城旬報」의 뉴우스源에 對하여」, 『韓國 言論學報』2  
\_\_\_\_\_. 1983 「漢城旬報의 史的 意義」, 『신문연구』 겨울 통권36호  
한보람, 2005 「1880년대 조선정부의 개화정책을 위한 국제정보수집: 漢城旬報의 관  
련기사 분석」, 『震檀學報』100호  
한상일 역·해설, 1993 『서울에 남겨둔 꿈』, 단국대학교출판부  
한실비, 2014 『漢城旬報의 清佛戰爭 보도에 나타난 개화지식인의 대외인식』, 단국대  
학교 석사학위논문

**Abstract****Perceiving China of the *Hansōng Sunbo***

Zhang, Bao-yun

This article examines how *Hansōng Sunbo* perceived China focusing on its news reports and tone of voice. *Hansōng Sunbo* paid particular attention to the changing status of China in the international relations as well as Sino-centric Asian order. Focusing on Sino-French War, *Hansōng Sunbo* expressed favorable stance towards China. The pro-China attitudes were particularly seen in the following four facets.

First, although *Hansōng Sunbo* admitting China having fallen behind in comparison to the western great powers, it nevertheless portrays China as a great power with a promising future. While expressing respect to East Asian civilization, in contrast, *Hansōng Sunbo* did not give full recognition and support to Western civilization.

Second, the *Hansōng Sunbo* illuminated the Chinese as a group of people with great possibility who could challenge hardship of the time. Similarly, it lavished compliments on both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and soldiers stationed in Korea.

Third, the *Hansōng Sunbo* took on a critical position to France in its confrontation with China at the time. France was characterized as a petty nation which, unlike China, “relied on its strength and violated the weak,” displaying strong notion of Asian solidarity.

Fourth, the negative attitude towards China in the course of “*Hansōng Sunbo incident*” was a mere passing phase.

**Key words :** *Hansōng Sunbo*, perceiving China, Chosön, Sino-French War, *Hansōng Sunbo* incident